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February
2013. 2

ISSUE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변화와 전망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쟁점과 과제

기업탐방 행복동지, 북카페 '산새'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경제일지

경제지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2013년 2월호

발 행 인 안희정·박진도

편집위원장 남궁영·정종관

편집위원 오세현, 백운성

집 필 진 총괄 임형빈

경제동향 임재영, 김양중, 홍성호, 김윤아, 이윤경

경제일지 김현철, 최성희

외부집필진 황정현(충남테크노파크)

발 행 처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65 팩스(041) 840-112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ISSUE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변화와 전망	3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쟁점과 과제	17
기업탐방	행복동지, 북카페 ‘산새’	33
경제동향	충남경제동향 (요약)	41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 · 물가	7. 건설 · 부동산
	4. 수출입	
	해외경제동향 (요약)	60
	1. 미국	3. 일본
	2. 중국	4. 유로지역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67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73
	2. 충남 주요경제지표	75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77
부록	1.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93
	2.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94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변화와 전망

황 정 현 |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선임연구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추진 배경

현대 경제의 세계화는 기술혁신 및 정보기술을 수반하면서 기업, 지역 및 국가간 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변화는 중앙 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이며 하향식 산업육성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분권적이며 상향식 산업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혁신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김찬준, 정종석, 2002). 이러한 정책 트렌드를 반영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의 산업육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추진 경과

지역산업진흥정책¹⁾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기반 구축 및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자 전개되어온 핵심적인 지역산업정책이다. 지역산업진흥정

1) 지역산업진흥정책에 의한 사업은 4개 지역 1단계('99~03) : 대구, 부산, 광주, 경남, 그리고 9개 지역 1단계('02~07) : 울산, 경북,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등으로 시행되었으며, '08년부터는 4+9개 지역을 통합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 관련 주요사업으로는 테크노파크조성사업(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산업진흥사업(기초지자체 주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산업단지공단 주관), 지역혁신센터사업(대학 주관) 등 다양한 지역정책을 추진 2010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지식경제부, 2010).

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99년부터 시작하였으며(1999년 대구의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부산의 신발산업, 광주의 광(光)산업, 경남의 기계산업 등 4개 시·도의 특화된 산업을 육성)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속한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경중수, 이보형, 2010).

지역산업육성정책 및 사업추진 경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0)

사 업 명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지역전략산업진흥	4개지역1단계 (H/W 등)				4개지역2단계 (H/W, R&D, 기업지원)				차기 지역산업진흥사업 (Post4+9)					
					9개지역1단계(H/W, R&D 등)									
					혁신산업기반구축 (H/W, R&D 등)									
					지방기술혁신(R&D 등)									
테크노파크 (TP) 조성	1단계(H/W 구축)								2단계(S/W지원)					
지역연고산업진흥									RIS프로젝트(R&D 등)					
									지자체연구소육성(RRI)(H/W)					
지역혁신센터 (RIC)	지역혁신센터(RIC)(H/W 등)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7개 시범단지 + 5개 신규단지				광역단위 본부체제로 변경	
광역경제권시범사업									광역경제권시범사업					
광역경제권연계협력 사업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즉, 지역산업진흥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경제 활성화란 산업육성→기업역량 제고 및 창출→고용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소득증대→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일련의 과정과 확산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시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진흥정책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2001년)을 시작으로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²⁾(1999년, 2002년), 테크노파크조성사업(1998년, 2000년), 혁신클러스터사업(2005년), 광역경제권사업(2009년)이 추진되면서 지역혁신기반의 지역산업진흥정책의 사업체계가 마련되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산업 정책으로서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13개 시·도별 전략산업³⁾을 선정하여 혁신인프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도모하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지원분야는 13개 시·도의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개 유형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역전략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신규 지역특화센터 설립과 장비구축을 통한 인프라 사업, 둘째, 지역 내 혁신지향형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특화센터와 전략산업기획단 등의 기술개발 지원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R&D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셋째, 일부 지역에서만 추진 중이었던 지역산업인력양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략산업 분야 현장인력 및 취업연계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산업 인력의 고급화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 넷째, 지역산업 기술지원 분야와 마케팅 활성화 분야, 지식서비스 바우처 분야를 통해 기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다섯째,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지역 R&D 기획 강화를 위해 국비, 지방비를 공동으로 투입하는 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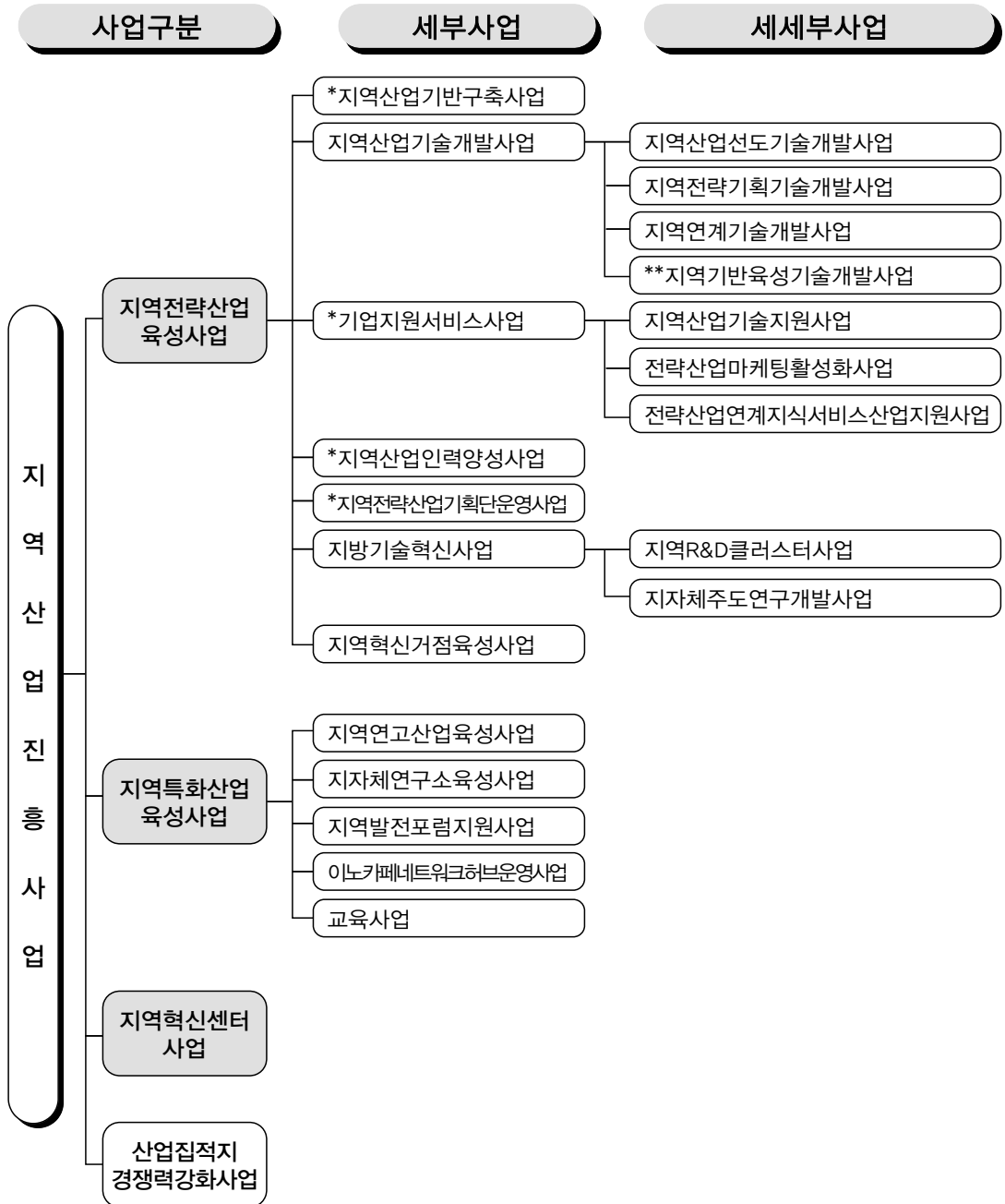
그러나 지역산업진흥정책의 추진 초기에는 중앙주도의 정책기획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지역의 차별적 산업 환경 및 지역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경중수, 2012). 이로 인하여 2009년부터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이 스스로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효율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역안배위주의 정책이 아닌 지역 간 협력과 경쟁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지역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지역 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산업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추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사업간 연계전략을 유도하여 지역사업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2) 2006년 이후 '지역산업진흥사업' 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으로 명칭 변경.

3) 충남 4대전략산업 : 전자정보산업,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산업.

지역산업진흥사업 세부사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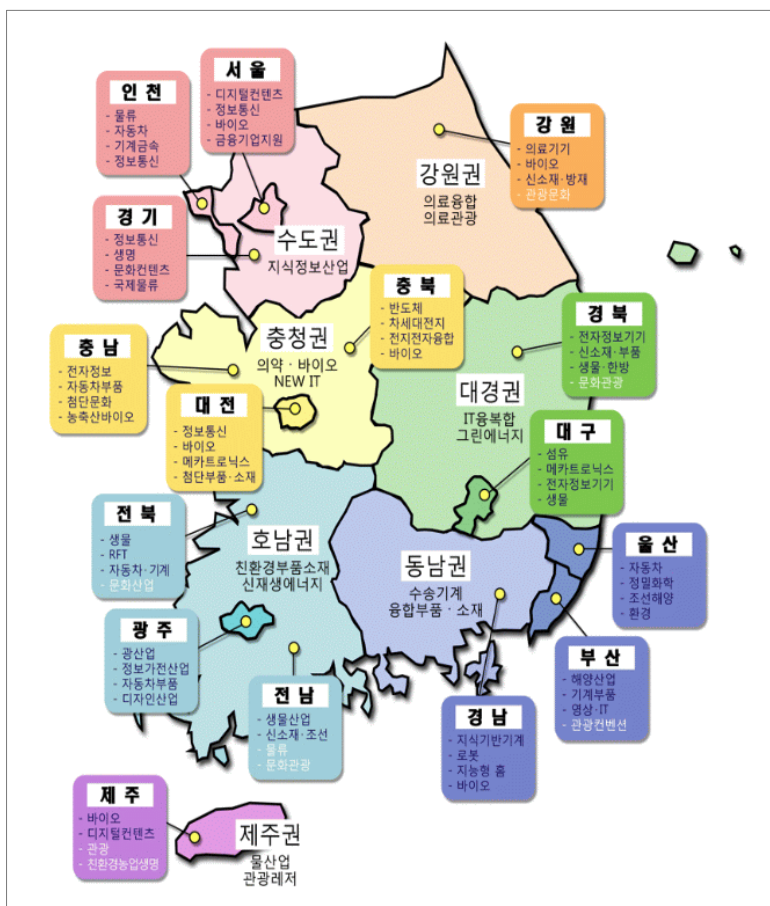
* : 보조금 사업(기타 사업은 출연금 사업)

** : 해당 지자체별 별도 추진(지방비 운영 사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변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1단계, '09~'11)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1, 2단계('12) 사업이 종료되면서 2012년까지 추진되던 3단계 지역산업정책은(광역선도전략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2단계 정책체계(광역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로 변화하게 되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을 부분적으로 통합한 선도산업은 2012년부터 추진되었고 국가산업정책과 시도 중심의 지역별 산업정책을 연계·접목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지역의 새로운 미래 산업 지도를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3년부터는 기초지자체(시, 군) 중심의 특화산업을 재편하여 광역지자체(시, 도) 중심의 특화산업으로 변화된다.

지역별 전략산업 및 광역선도산업 현황



충청권의 경우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국가산업 발전비전 및 정책방향, 충청권 내 기술산업 여건과 잠재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의약바이오, 차세대에너지, New IT, 융합기계부품산업 등 4개 산업군을 선도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광역경제권의 핵심 대표산업으로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지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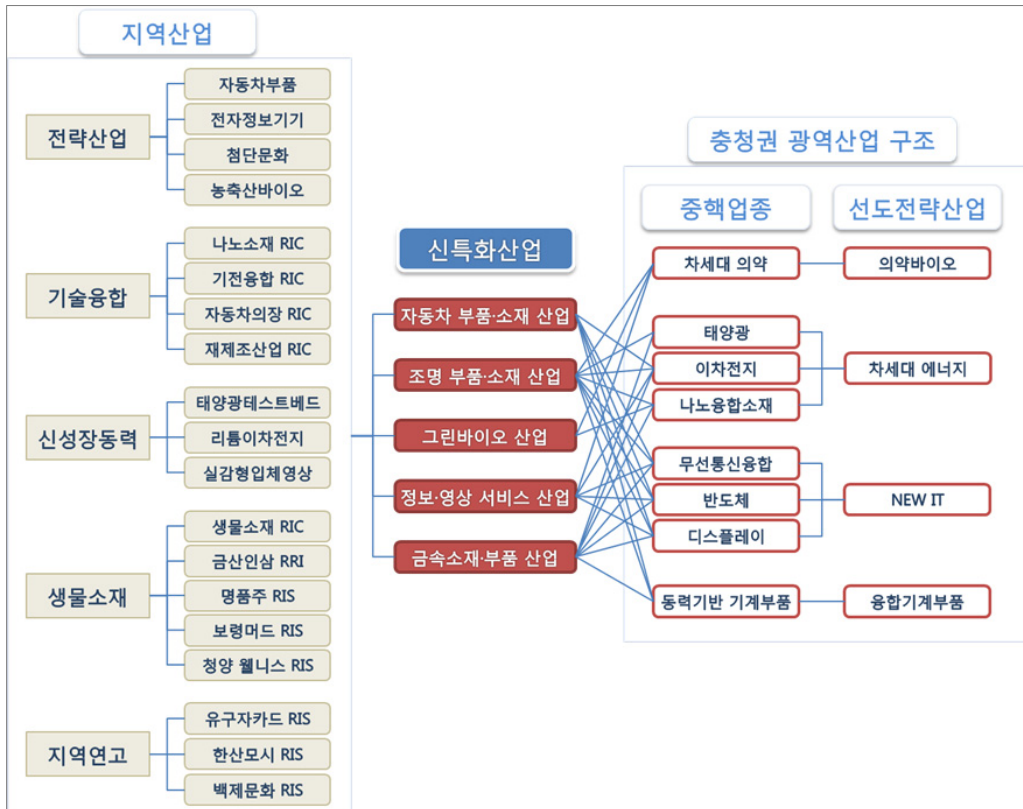
충청권 선도전략산업 선정 현황

구분	산업군	중핵업종	유망품목
미래 성장동력 산업	의약 바이오	차세대의약	합성의약품, 생물체의약품, 의약품소재, 진단용소재, 의료용소재, 동물체의약품
	차세대 에너지	태양광 (부품중심)	셀/모듈 구성 부품, 시스템/설치 부품(글라스, 기판, 타겟, 백시트, 리본, 필름, 케이블, 정션박스, 프레임, 인버터 부품, 트랙커부품, 전력제어부품)
		이차전지	단위셀 및 구성소재, BMS, 시스템구성부품
		나노융합소재 (화학소재기반)	나노코팅, 고기능 멤브레인, 고성능 촉매, 정밀화학제, 고기능 첨가제
대표 주력산업	NEW IT	무선통신융합	무선통신융합정보기기, 근거리무선통신시스템, RFID/USN 시스템, 차량/선박용 무선기기, 무선원격계측시스템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화합물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디스플레이	차세대D/P, D/P용 부품/모듈, D/P제조장비, OLED
	융합기계부품	동력기반 기계부품	제어부품 및 기기, 자동화모듈 및 시스템, 시트 및 능동 공조 부품

충남은 시도에 특화된 전통 주력산업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숙련집약형 산업, 생 산기반형 산업, 향토(뿌리)산업 등을 중심으로 신지역산업 특화발전을 위해 산업별 지역 여건 및 비교우위에 기반한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화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소재-부품-모듈-완제품-서비스 등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산업 간 연계를 추진하였고,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한 밀착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산업별 가치사슬에서 벗어나 미래 유망기술품목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10년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추진성과를 토대로 산업 융

합화, 개방형 혁신 등 경제·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창의적 신평화산업의 지원체제로 개편하였다.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구조 개편 방향 및 선도전략산업과 신평화산업과의 연관 관계



따라서 충남은 시·군 위주의 지역특화산업을 시·도 중심으로 확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특화산업 및 연고자원을 충청권광역선도전략산업의 중핵업종과 수요·연계기반의 숙련집약형 산업, 생산기반형 산업, 향토(뿌리)산업 등을 중심으로 신평화산업을 선정하였다.

신지역특화산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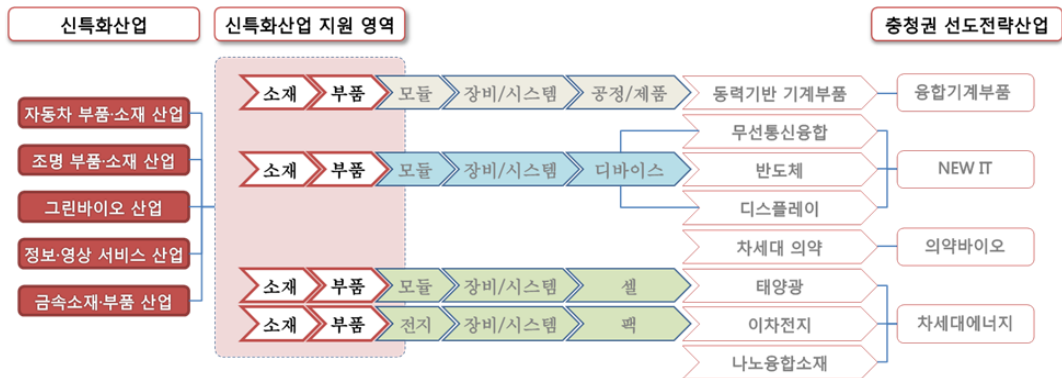
새롭게 추진되는 신지역특화산업은 충남의 특화산업을 토대로 주력·성숙산업으로서 지역의 수요가 높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 정체성 확보 및 분권화 기초를 반영하여 지역의 산업육성 수요를 탄력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수요기반형 산업이며,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에 기초로 한 지역경제 기여도(고용 창출 및 투자유도)가 높은 충청권 선도전략산업과의 수요·연계가 가능한 숙련집약형 산업, 생산기반형 산업으로 충남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이다.

신지역특화산업의 유형

산업유형	산업특징
(유형1) 지역주력 · 연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시도 차원의 주력산업 · 시군구 차원의 기존 연고산업 중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아 시도차원에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 · 일정 수준의 기술혁신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성장률이 높아 향후 지역경제 기여도가 크게 기대되는 시도 차원의 新성장산업
(유형2) 뿌리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뿌리산업(제조업 기반산업)*으로서 광역선도전략산업과 시도주력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
(유형3) 문화융합생활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융합 생활산업으로서 전국대비 지역의 비중(특화계수) 또는 성장률이 높으면서 지역 내 고용창출 효과가 지대한 산업
(유형4) 지식기반서비스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중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아 시도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서 선정한 충남 신지역 특화산업은 다음과 같다.

충청권선도전략산업(완제품) 수요연계형 충남 신특화산업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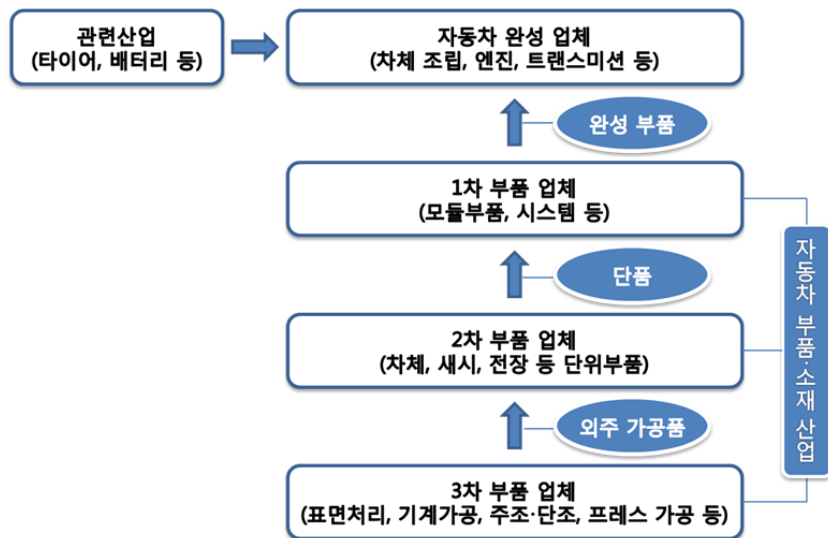


1)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자동차 부품·소재산업은 단순 소재와 부품부터 고도의 정밀가공부품에 이르기까지 품목이 다양하고 소재공업, 전기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 기계공업 등과도 기술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중층의 분업구조와 전문화가 필수적인 산업이다.

완성차업체는 통상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엔진, 변속기 등 주요 기능부품과 외관품질을 결정하는 스킨패널을 자체생산하고 있을 뿐 그 외 대부분은 외주방식으로 조달하며, 산업 내 중층구조는 1차, 2차, 3차 등으로 계열화되어 기업 규모도 소규모 영세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충남 자동차 부품·소재 신특화산업과 범위



2) 조명 부품·소재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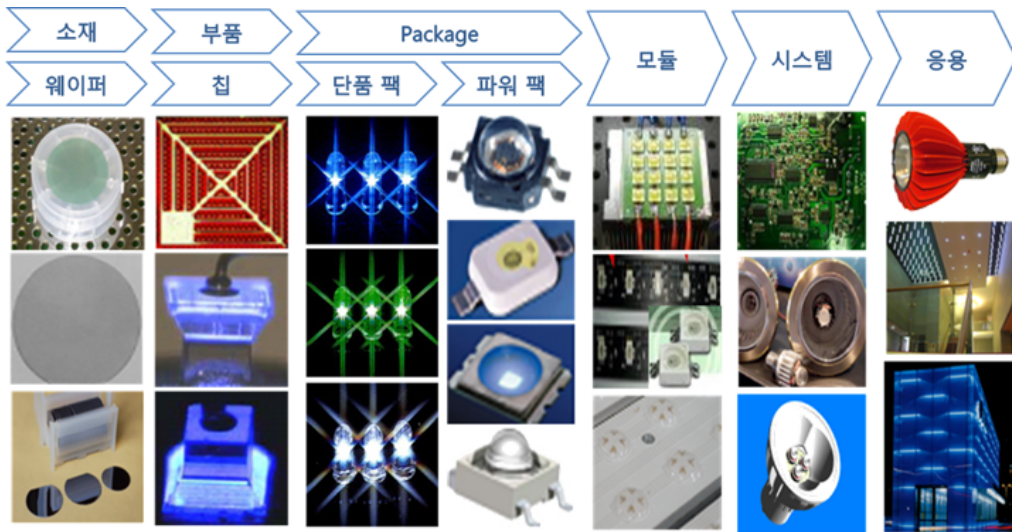
조명용 부품·소재산업은 광소자를 제조하거나, 조명기기를 제조하거나, 응용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조명용 광소자 산업은 p-n접합된 반도체에 전기에너지를 가하여 반도체 밴드 갭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광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광소자는 조명 및 응용제품의 성능을 1차적으로 결정하는 핵심소자이며, 특히 LED 조명산업

은 LED광소자를 이용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명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주거, 사무공간의 실내조명, 총 천연색 변환조명으로 환경조명(예: 건축, 경관, 도로조명 등)이 강점이다.

조명 응용(융합)산업은 조명을 이용하여 정보가전, LCD BLU, 자동차, 조선, 해양수산, 농생명, 의료, 환경 등의 산업용 조명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조명용 부품소재 산업은 광소자를 제조하거나, 조명기기를 제조하거나, 응용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충남 조명 부품·소재 신특화산업과 범위



3) 그린바이오산업

그린바이오산업은 식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중에 제반 경제 행위를 수행하는 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식품가공업을 포함한 수집, 중계, 운수, 보관, 생산기계제조, 용기, 포장, 외식 도매와 같이 넓은 영역을 포함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산업은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 가공업과 냉동 보관업만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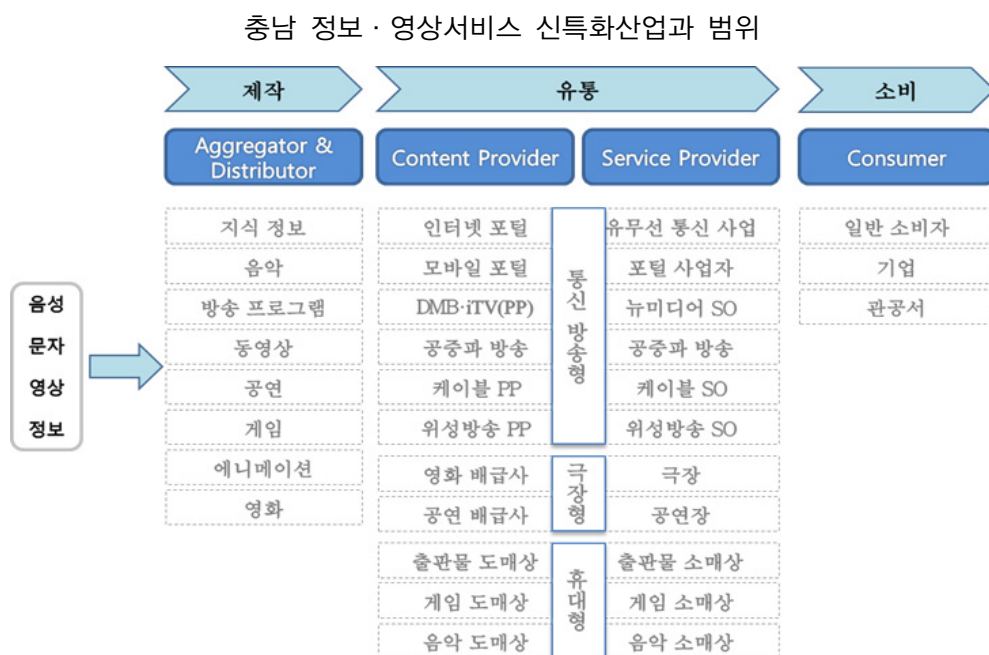
식품산업관련 법규의 범주에는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수확에서부터 이를 저장,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현대에는 인구 고령화, 웰빙문화 확산,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가속화, 시장개방 및 국제유통 확대 등으로 친환경 안전 식품,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배·유통 부문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식품소재산업 기술개발은 사회적 및 소비자 니즈에 맞게 고기능성, 지능형, 고효율, 친환경, IT접목, 고품질, 안전성을 지향해야 하며, 또한 기술 개발과 아울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망제품의 국산화, 기술 실용화 단계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수출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정보·영상 서비스산업

정보·영상 서비스산업은 영화, 음반, 게임 등과 같은 정보·문화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 정보 콘텐츠에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등)를 추가한 개념이다.



콘텐츠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 또는 정보를 나타내며, 산업의 범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화의 진전 등으로 크게 확대

되고 있는데, 분류는 기술 적용방식, 콘텐츠 구현 매체, 유통경로, 콘텐츠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콘텐츠 이용 형태 측면에서 보면, 문화콘텐츠 산업은 정보콘텐츠산업 및 교육콘텐츠 산업과 함께 콘텐츠산업을 구성하고 있다.

5) 금속소재·부품가공산업

금속소재·부품가공산업은 금속을 용해하여 주형에 주입한 것을 압연·단조·선긋기 등을 말하는데 주조도 금속가공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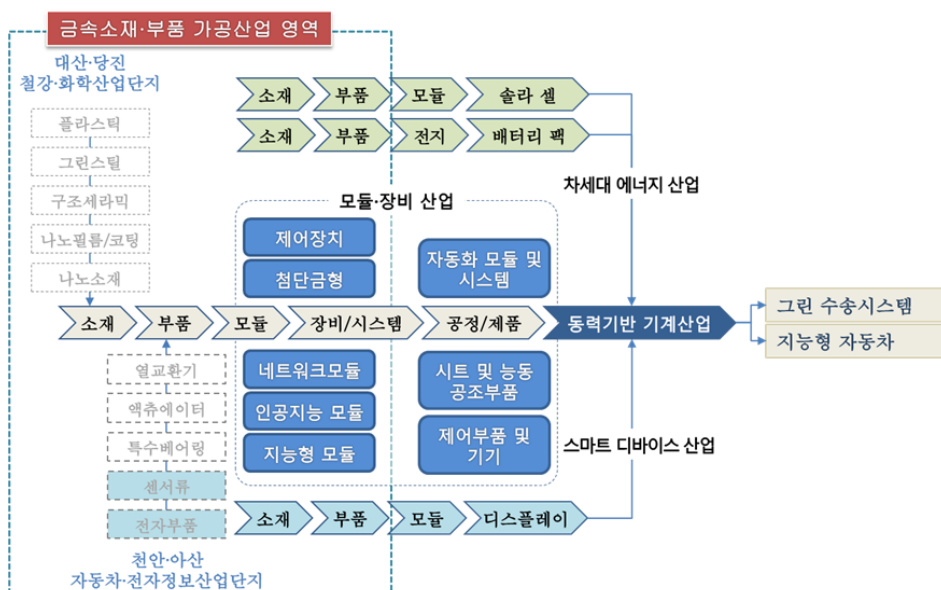
금속가공산업에는 크게 금속으로 된 플레이트·봉·관 등을 만드는 압연장치·제관장치 등의 1차 금속제품 제조업과 판·관을 재료로 해서 그것을 성형·가공하는 벤딩머신·유압프레스·기계프레스·와이어포밍머신 등의 단압 기계와 절단기를 이용하는 2차 금속제품 가공업이 있다. 금속가공기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품은 다시 다양한 공작기계를 이용 일련의 중간재로 가공되는 과정을 거친다.

1차 금속가공기계는 주로 철강업·비철금속공업 등의 금속재료산업에서 이용되는데, 보통 압연기계·제관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기계장치가 큰 체계를 이루고 있다. 2차 금속가공기계는 주로 기계공업에서 이용되며, 특히 자동차공업 등의 중간재 양산적인 기계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설비기계이다.

금속가공기계에 의한 가공법은, 공작기계가 하는 절삭가공과 주조장치가 하는 주형에 대하여 외력에 의해서 늘리거나 굽히는 금속재료의 성질을 이용하는 소성가공이 있다.

소성가공은 가공속도가 대단히 크며, 재료에 대한 제품비율이 좋아 최근에는 소성가공의 가공정밀도와 응용범위가 기술적인 향상에 의해서 높아지고 넓어졌으므로, 공업의 생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그 전에 사용됐던 절삭가공이 소성가공화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와 같이 철강업이나 자동차공업의 발전에 따라 금속가공 기계공업도 현저하게 성장된다.

충남 금속소재·부품가공 신특화산업과 범위



새롭게 추진되는 신지역특화산업 또한 기존 지역산업진흥정책의 추진 목표와 그 뜻을 같이 한다. 지역내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 형평성 지향의 지역정책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 효율성 지향의 산업정책을 균형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지역자원의 활성화와 연계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산업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해 왔으며 이 중 지역전략산업지원사업은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 지원 등 기업지원종합체제 구축으로 지역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업이율 증대, 고용인원 증대, 기술력 향상 등 지역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역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테크노파크 및 지역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이 강화되었으며, 테크노파크를 구심점으로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체제가 구성되었다. 이로써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창출하여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였으며 지역내 균형발전의 첨병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새롭게 시작되는 신지역특화산업의 국가예산은 총 2,300억원(2013년 기준) 규모로 광역경제권사업의 출현과 지역산업정책의 2단계 체제 변화⁴⁾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전략산업육성정책과 비교해 예산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2012년 기준 국가 예산 3,812억).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마무리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규모는 광역선도산업에 비해 매우 위축된 것이 현실이다.

신지역특화산업의 추진 목표는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광역선도산업지원사업, 지역전략산업지원사업,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지역산업진흥사업 기업지원정책의 연속성 및 완결성을 위해 지역특화사업예산의 삭감은 현재로선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화발전을 위해서는 신지역특화산업의 예산지원규모 확대와 지속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지역산업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지역산업 예산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경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완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신지역특화산업 선정에 관한 연구」, 2012.
 경중수, 이보형, 「충남지역 전략산업 지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산학기술학회, 2010.
 산업연구원, 「지역산업 정책효과 분석모형 연구」, 2007.
 산업연구원, 「4+9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 성과분석」, 2007.
 이경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2010.

4) 기존 3단계 : 광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변화 2단계 : 광역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쟁점과 과제

고 승 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론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함께 이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복지제도가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식됨과 동시에 수요와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 있어 복지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복지예산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의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어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임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율제도가 일부 사업에 도입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높은 지방비의 부담비율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으며 주된 사회복지사업비 조차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로 발생됨
-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문제의 완화를 위한 제도들이 단편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해있는 복지재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2. 복지재정의 현황

1) 사회복지비 비중

- 복지분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정부 간 재정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지방재정의 부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됨
 - 2011년 지방예산 141조 원에서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20.2%인 28.5조 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13.3%로 중앙정부의 8.9% 증가율 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 무상급식과 보육료 지원 확대 등과 같은 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조를 감안하면 지방재정에서 복지비 부담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 더욱이 예산 증가율은 중앙정부보다 낮은 상태에서 사회복지비의 증가는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비 부담 증가를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할 수 밖에 없음

중앙-지방 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부담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예산규모 (A)	중앙정부	238.4	262.8	301.8	292.8	309.1	6.7
	지방자치단체	112.0	125.0	137.5	139.9	141.0	5.9
복지비 (B)	중앙정부	61.4	68.8	80.4	81.2	86.4	8.9
	지방자치단체	17.3	21.7	24.1	26.5	28.5	13.3
복지비비중 (B/A)	중앙정부	25.8	26.2	26.6	27.7	28.0	-
	지방자치단체	15.4	17.4	17.5	18.9	20.2	-

자료: 이용철, 2012.

- 현재까지 지방재정이 부담하는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이 필요한 사업과 관련한 것임

- 201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사회복지비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비가 9조 원으로 전체 31.9%를 차지하였으며 노인·청소년(24.2%), 보육·가족 및 여성(23.7%) 순임
 - 취약계층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3% 미만의 소규모 사업들이며 지출 비중이 큰 사업들은 대부분 생계·의료급여,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과 같은 현금급여의 보조사업들임
 - 자체사업 비중은 기초생활보장 3.4%이고 보육·가족 및 여성의 경우 7.7%에 불과함(이재원, 2012)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지출은 재정신장률 이상의 수준으로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 중앙정부의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사회복지비의 지출 증가는 전체 중앙정부 재정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임
 - 2015년의 중앙정부 재정규모는 373.1조 원으로 기준년도인 2011년보다 20.7%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이보다 5.6%가 더 높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2015년은 99.7조 원으로 2011년의 78.9조 원보다 20.8조 원이 더 많음
 - 중앙정부의 복지지출 분야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지출의 절반 정도를 공적연금이 차지하고 있음
 - 공적연금은 2011년 28.2조 원에서 2015년 43.9조 원으로 55.9%가 증대될 전망이며 나머지 복지부문의 지출 증가율은 9.9%에 불과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4년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는 52.2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기준 년도인 2010년에 비해 16.3% 증가한 것이며 이는 전체 지방재정 증가율 12.9%보다 3.4% 더 높은 수준임
 - 이를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중기재정계획상으로 중앙정부는 공적연금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대신 나머지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서는 지방재정의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정부 간 복지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이재원, 201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 지출 전망

(단위 : 십억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준년도 대비 재정 신장률
중앙 정부	중앙정부 재정	309,100	326,100	341,900	357,500	373,100	20.7
	사회복지	78,894	84,151	89,147	94,505	99,653	26.3
	기초생활보장	7,524	7,910	8,384	8,315	8,664	15.2
	취약계층지원	1,343	1,389	1,387	1,432	1,487	10.7
	공적연금	28,183	31,408	34,926	39,638	43,933	55.9
	보육/가족/여성	2,876	3,007	3,133	3,269	3,411	18.6
	노인/청소년	3,876	4,009	4,127	4,245	4,369	12.7
	노동	12,618	12,790	13,446	13,612	14,058	11.4
	보훈	3,874	4,064	4,270	4,335	4,502	16.2
	주택	18,054	18,983	18,830	18,980	18,588	3.0
	사회복지 일반	546	591	644	679	641	17.4
	보건	7,500	7,813	8,162	8,285	8,601	14.7
지방 자치 단체	전체	200,644	209,795	216,663	223,330	—	12.9
	사회복지	46,761	47,765	49,643	52,228	—	16.3
	보건	2,947	2,967	3,059	3,066	—	5.1

자료 : 행정안전부, 2011 ; 기획재정부, 2011.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현황

- 200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총예산은 매년 평균 5.5%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예산은 평균 15.0%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02년 총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9.5%였으나 2010년에는 총예산의 19.0%를 차지하고 있음(이희봉: 2007)

지방복지재정의 지출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증가율
총 예산	911,154	975,256	988,924	1,070,625	1,154,722	1,280,366	1,444,536	1,567,029	1,398,565	5.5
복지 예산	86,481	94,264	106,678	128,858	153,220	188,102	237,093	291,746	265,342	15.0
비율	9.5	9.7	10.8	12.0	13.3	14.7	16.4	18.6	19.0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최종예산 순계규모(2010년도는 당초예산).

주2) 2008년 이후는 사업예산 분류기준에 의한 자료이며, 2007년 이전보다 지방복지재정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음.
자료 : 이회봉, 2007;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이유주, 2011.

- 사회복지예산을 재원별로 비교해 볼 때, 국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52.5%를 차지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비중은 각각 27.2%, 20.3%를 차지함

사회복지예산 재원별 구성 비교

(단위 : 억원, %)

연도	계	국비	사도비	사군구비	기타
2008	216,651	107,961	65,917	42,709	64
	100.0	49.8	30.4	19.7	0.03
2009	241,455	125,863	64,652	49,359	1,582
	100.0	52.1	26.8	20.4	0.7
2010	265,342	139,300	72,270	53,773	-
	100.0	52.5	27.2	20.3	-

주 : 당초예산, 순계예산 규모 기준(적용회계 : 일반회계+특별회계).

자료 : 행정안전부, 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이유주, 2011.

- 2010년 사회복지예산을 구조별로 비교해 볼 때 정책사업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비중이 86.8%로 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함
- 2010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비중은 12.6%로 2009년에 비하여 1.3% 감소하였음

사회복지예산 구조별 구성 비교

(단위 : 억원, %)

연도	계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2008	216,658	186,517	28,998	1,068	75
	100.0	86.1	13.4	0.5	0.03
2009	241,455	206,512	33,559	1,385	-
	100.0	85.5	13.9	0.6	-
2010	265,342	230,297	33,328	1,717	-
	100.0	86.8	12.6	0.7	-

주 : 당초예산, 순계예산 규모 기준(적용회계 : 일반회계+특별회계).

자료 : 행정안전부, 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이유주 : 2011.

3) 사회복지 관련 지방재정조정제도

-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재정적 이전을 수행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이전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70~80%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또한 연평균 14.0%의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영유아 보육사업 등이 대표적임
- 분권교부세는 2005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임
 - 2005년도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83%인 8,454억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내국세 총액의 0.94%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
 - 분권교부세는 기존 기간(2005-2009)을 5년 연장하여 2014년까지 운영되며 149개의 지방이양사업 중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은 69개로 현재 분권교부세 전체 재원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중 약 25%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원으로 배분되고 있음
-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헌법 불합치결정 및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침체 등으로 세수가 급감하는 등 사회복지재정 재원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3. 충청남도 복지보건정책 사업 및 재정

- 2011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을 중심으로 복지보건사업은 총 489개 사업으로 정리됨
- 11개 영역에 489개 사업으로 일반예산 434개 사업, 기금예산 45개 사업임

분야별 복지보건사업의 현황(2011년)

구분	계	노인	출산	보육	사회복지	보훈	생활보장	아동	장애인	보건	식품	약품
계	489	55	15	26	11	14	30	53	84	142	40	23
일반예산	434	51	15	26	11	14	23	53	82	142	8	23
기금예산	45	4	-	-	-	-	7	-	2	-	32	-

자료 : 충남 복지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1.

- 충청남도의 2011년도 본예산에 제시된 기능별 복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61,455백만 원임
- 기능별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2008년 이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1년 충청남도 기능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구성비는 기초생활보장이 11.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노인·청소년 6.28%, 보육·가정 및 여성 4.24%, 취약계층지원 2.42% 순으로 나타났음⁵⁾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복지예산 비중	23.51%	25.72%	25.06%	25.46%	25.17%

5) 기능별 사회복지예산은 복지보건국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건설교통항만국, 건축도시과 등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서 참조.

- 2011년 충청남도 총계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을 중심으로 재원분담별 복지보건 예산은 다음 표와 같음
 - 전체사회복지예산을 살펴보면 국비가 64.18%, 도비 16.51%, 시군비 18.95%로 나타남
 - 도 본청의 경우 국비가 79.0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도비는 20.22%에 불과함
 - 반면 전체 보건예산은 국비가 40.26%, 도비 21.67%, 시군비가 38.07%로 사회복지예산에 비하여 국비 비율이 낮고 시군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충남 재원분담별 복지보건예산 현황(2011년 본예산 총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사회복지	전체	2,249,758 (100.0)	1,443,787 (64.18)	371,478 (16.51)	426,406 (18.95)	8,087 (0.36)
	도본청	1,061,454 (100.0)	839,149 (79.06)	214,610 (20.22)	-	7,695 (0.72)
	시군	1,188,303 (100.0)	604,638 (50.88)	156,867 (13.20)	426,406 (35.88)	392 (0.03)
보건	전체	177,427 (100.0)	71,436 (40.26)	38,446 (21.67)	67,545 (38.07)	-
	도본청	71,657 (100.0)	46,492 (64.88)	25,165 (35.12)	-	-
	시군	105,770 (100.0)	24,944 (23.58)	13,281 (12.56)	67,545 (63.86)	-

주) 재원분담별 사회복지예산은 기능별 예산분류에 의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여성, 노동, 보훈, 주택 등의 예산이 포함된 것이며 복지보건국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등의 예산이 포함된 것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1).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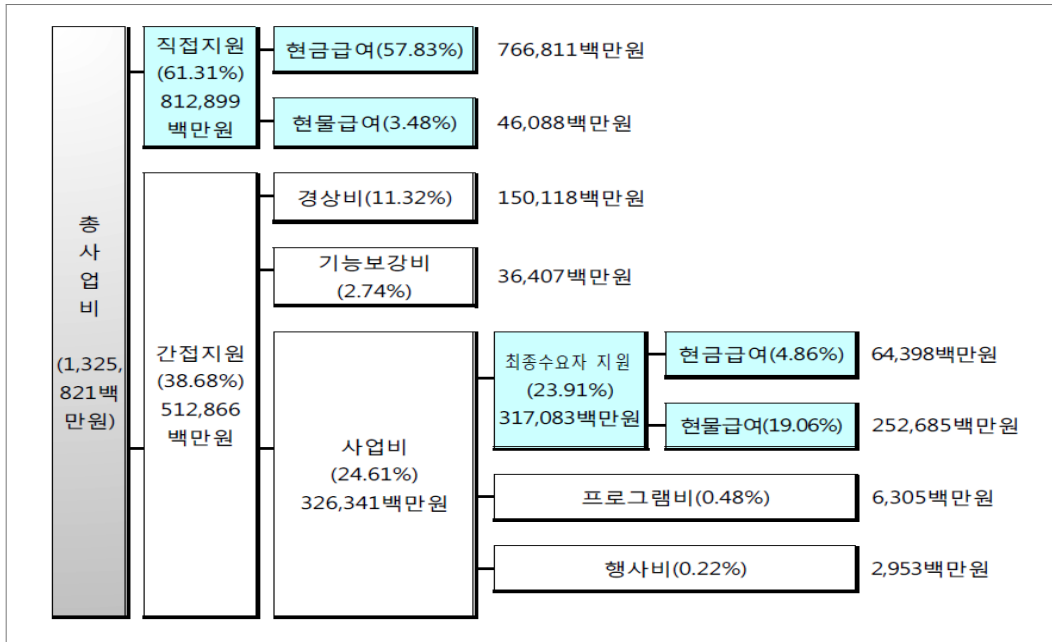
- 보건분야를 제외한 복지사업비의 지원방식, 즉 수요자에 대한 직접지원과 시설 및 단체 등을 통해 간접지원방식으로 구분하여 복지사업비를 다음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1,325,821백만원 중 직접지원 비율은 61.31%이며 간접지원은 38.68%로 나타남
 - 직접지원 비율 중 총사업비 대비 현금급여의 비율은 57.83%, 현물급여의 비율은 3.48%를 보이고 있어 현금급여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된 복지급여가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간접지원 중 사업비가 전체 복지사업비의 24.61%, 경상비 11.32%, 기능보강비 2.74%를 나타내고 있으며 간접지원의 사업비 중 최종수요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주로 현물급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업비 중 최종수요자에 지원된 금액의 비율이 23.91%를 고려할 경우 복지사업비는 대부분 수요자에게 지원되는 비용임을 알 수 있음

지원방식에 따른 충남 복지사업비 현황(2011년 1회 추경예산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총사업비				총사업비 지원방식							
						직접지원		간접지원					
						현금성	현물성	경상비	기능보장비	최소수요자지원		프로그램	행사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예산액	현금성	현물성	사업비	사업비
총계	총계	1,325,821	793,836	211,912	325,819	766,811	46,088	150,118	36,407	64,398	252,685	6,305	2,953
	도직접	247,530	90,000	57,530	-	92	133	8,127	1,807	110	235,885	904	472
	시군	1,078,291	603,836	54,382	325,819	66,719	45,955	41,991	34,600	64,288	16,800	5,401	2,481
노인복지	소계	336,388	197,501	39,640	98,848	225,320	8,218	19,945	21,414	44,506	14,152	1,920	914
	도직접	812	296	516	-	-	-	616	85	-	-	40	71
	시군	335,576	97,205	39,124	98,848	225,320	8,218	19,329	21,329	44,506	14,152	1,880	843
보육(영유아복지)	소계	263,041	115,697	41,829	105,499	191,084	467	59,799	2,541	7,713	1,154	120	163
	도직접	950	325	625	-	-	-	930	-	-	-	-	20
	시군	262,091	15,372	41,204	105,499	191,084	467	58,869	2,541	7,713	1,154	120	143
기초생활	소계	528,759	415,934	75,317	37,359	54,558	26,606	4,348	150	5,898	36,291	852	-
	도직접	235,885	188,791	47,094	-	-	-	-	-	-	35,885	-	-
	시군	292,874	27,143	28,223	37,359	54,558	26,606	4,348	150	5,898	406	852	-
기타복지(보훈, 서민투자)	소계	33,257	9,693	3,951	19,639	21,048	2,089	6,426	1,930	437	313	496	518
	도직접	2,242	-	2,242	-	4	133	622	1,240	75	-	138	30
	시군	31,015	9,693	1,709	19,639	21,044	1,956	5,804	690	362	313	358	488
아동복지	소계	49,258	16,665	16,467	22,148	18,287	8,006	15,142	1,485	3,697	622	1,500	411
	도직접	1,258	155	1,103	-	-	-	1,044	-	35	-	108	71
	시군	48,000	16,510	15,364	22,418	18,287	8,006	14,098	1,485	3,662	622	1,500	340
장애인복지	소계	115,118	38,346	34,708	42,057	56,515	701	44,458	8,888	2,147	153	1,309	947
	도직접	6,383	433	5,950	-	88	-	4,915	482	-	-	618	280
	시군	108,735	37,913	28,758	42,057	56,427	701	39,543	8,406	2,147	153	691	667

다음 장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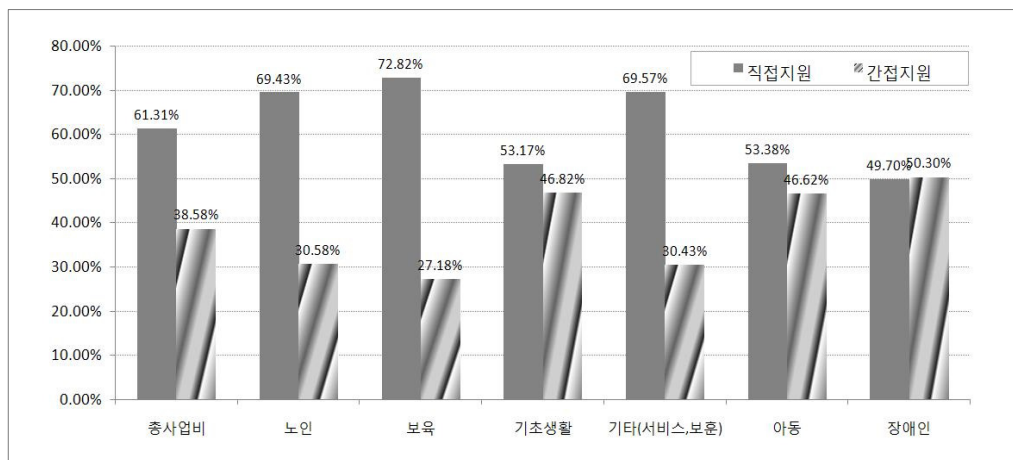
주) 총사업비의 지원방식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직접지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최종수요자에게 직접 지원.
- 간접지원 : 중간매개체(시설, 단체, 병원 등)를 통해 최종수요자에게 지원.
- 현금급여 : 최종수요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 연금, 수당 등.
- 현물급여 : 최종수요자 개인에게 소비가 강제된 특정 재화나 서비스, 의료비, 바우처 등.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결정적 차이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여부.
- 경상비 : 시설단체 운영을 위한 비용. 인건비, 물건비 등.
- 기능보강비 : 다수 장애인이 이용하는 물적기반을 갖추기 위한 비용, 건축비, 장비보강 등.
- 프로그램비 :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루어지는 교육 및 재활사업비.
- 행사비 :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념행사, 일일체험 등 일회성 사업비.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2011)/충남 복지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1.

- 복지분야별 지원방식에 따른 복지사업비의 직접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보육 72.8%, 서비스·보훈 69.57%, 노인 69.43%, 기초생활 53.17%, 아동 53.38%, 장애인 49.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육료 지원에 따라 보육분야 직접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짐

충남의 복지분야별 사업비의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비율



4.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쟁점과 과제

1) 복지재정의 쟁점

- 복지사업의 대부분이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무적 지출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예산의 대부분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출이므로 정책적 필요에 의한 재량이 극히 제한되며, 투자가용재원의 산출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재분배적 성격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생활보장, 사회통합의 실현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효용성 등의 가치에 의해 정당화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매년 평균 약 14.0%씩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의 부담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매년 평균 13.3%씩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부담금은 15.5%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감사원; 2008)
- 최근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이 확대되고,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보육 등 복지대상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예산비율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의 우선 원칙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의 상당규모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됨
-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복지수요산정과 개별 복지사업의 성격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보조율 적용방법과 지방비 부담방식 등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되고 있음
-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조치를 취하는 등의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나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부담 등을 우려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신규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발생됨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과 비교하여 분권교부세의 증가율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방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복지예산에 대하여 일부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부정수급자 발생, 성과미흡, 낭비지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임
 - 따라서 사업의 폐지 또는 삭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음
 - 현재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급경험, 낮은 지원수준,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경우 기존 사업 외에 복지예산의 확대는 불가피 함

2) 복지보건사업 예산운용의 과제

- 향후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바람직한 운용방향 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경직성 해소 및 재정안정성을 위한 재정교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복지비의 급속한 증가를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의무지출의 증가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분야에 대한 가용재원 가능성을 침해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 및 분권교부세의 개편 없이는 향후 복지재정의 유연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행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을 보다 세분화하여 지방비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등 의무지출의 증가는 자격급여지출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자격급여 지출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권교부세제도가 2014년 운영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논란이 예견되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 검토되어야 함
 -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분권교부세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이 되는 분권교부세율이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세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움
 - 이는 비록 지방분권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나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균등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한다면 현행 분권교부세에 의해 운영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복지사업의 효율화와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예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업 중 낭비성 지출, 부정수급 문제 등 정책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율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5. 마치며

- 향후 2018년 우리나라의 모든 자치단체가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복지대상자 수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수준도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시점임
 - 사회복지라는 것이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인지한다면 여전히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구조 속에서 정부 간 복지재원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복지재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에 대한 신뢰부터 형성하려는 노력과 함께 문제의 인식과 대안의 공동모색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강구되는 대안에서도 지방재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감사원, 2008,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 강혜규 외, 2006, 「지방화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
- 기획재정부, 201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김은정, 2007, “지방화 관점에서 본 사회서비스 확충과제”, 사회복지정책.
- 서정섭 외, 2010, 「지방의 복지재정수요 대응 분권교부세 개선과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이용철, 2012, “2012 지방재정 및 예산운용방향”, 「지방재정」 제1호.
- 이유주, 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이재원, 2011,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현황과 특성분석”, 「지방재정과 지방세」 12호.
- 이재원, 2012, “사회복지 기능분담을위한 자원배분 방향”, 「지방재정」, 지방재정공제회.
- 이희봉, 2007,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수요전망”, 「지방재정」, 지방재정공제회.
- 최은희 외, 2011, 「복지보건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행정안전부, 2011,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기업탐방



행복동지, 북카페 ‘산새’

— 산새(<http://blog.naver.com/sansae336>) —

삶의 여유가 필요할 때, 때론 나 자신과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종종 찾게 되는 게 북카페다. 웬만한 도심이면 한 두 곳의 북카페가 자리한다. 북카페는 책을 좋아하는, 찾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책장 가득한 책들 속에서 나를 찾고 유리창가에서 들어오는 밝은 햇살을 받으며 차 한잔을 마시는 곳이다.

이런 북카페를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곳이 있다.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북카페 ‘산새’ 이야기다.

이왕 책과 함께 하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누리하고자 할 때 제격인 곳. 그를 위해 북카페 ‘산새’는 다양한 책으로 공간을 채웠다.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북카페는 처음이다. 어떻게 운영하길래 사회적기업이 됐을까.



북카페 ‘산새’ 전경

* 주 : 기업탐방은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격월로 연재됩니다.

북카페 ‘산새’, 사회적기업인 이유

오수연(43) 산새지기(운영자)는 “‘산새’는 취약계층을 생각하고 이윤의 사회환원을 추구하는 천안사회적기업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커피는 아름다운커피의 공정무역커피로, 차는 친환경 재료로 제공된다. 모과차에 들어가는 모과는 정은정(37) 산새지기의 시아버지가 농사지은 것이다. 정 산새지기는 “시아버지께서 농사지은 모과를 가져와 직접 잘게 썰어 꿀로 재워 만들었다”며 “모든 식재료는 믿을 수 있는 곳, 주변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생산품을 쓰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돈가스, 비빔밥 등의 먹거리 역시 생협, 한살림 등의 유기농매장에서 제공받는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다. 좋은 책과 착한 커피, 친환경 먹을거리가 있는 문화공간을 표방하며 지난 2010년 12월에 출발한 ‘산새’의 약속이다.

특히 북카페 ‘산새’는 공간 내에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지역의 좋은 흐름을 주도 하겠다는 포부가 크다.

우선 지역에 인문학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인문학 강좌를 매월 열고 있다. 첫 인문학 강의는 서해성 교수(소설가)의 강연으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산새’를 다녀간 작가들로는 ▲‘똥꽃’의 저자 전희식 ▲‘다시쓰는 택리지’ 저자 신정일 ▲궁중요리 전문가 윤혜신 ▲역사학자 백승중 ▲‘유토피아 이야기’ 박홍규 교수 ▲‘미술관 옆 인문학’ 저자 박홍순 ▲시인 이정록 ▲‘아파트와 바꾼 집’을 쓴 박철수 교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책, 차 그리고 좋은사람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산새’

전시회도 자주 열린다. 인기 아나운서 이금희, 서울시장 박원순, 연기자 추상미, 가수 김C.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의 공통점은 ‘공정무역 스타’다. 지난 8월에 ‘인간의 얼굴을 한 무역’이라는 주제의 ‘공정무역 사진전’으로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사진전을 열었다.

숨쳐 있는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갤러리도 자주 갖는다. 소모임의 장소로도 쓰인다. 이 모두가 무료다. 지난겨울에는 ‘책 읽는 북극곰 살리기 프로젝트’를 열었다. 전 기조명만 켜 북카페에서 난방장비 없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7시간 동안 무박으로 밤새 책을 보는 행사다.

참가자에게는 잠시 추위를 달래줄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과 유기농 사발면이 나왔다. 참가비 가운데 절반은 지역 환경단체인 천안녹색소비자연대에 기부했다.

‘산새’의 주 수입은 차와 식사다. 여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직원 3명을 쓴다. 공동출자한 7명의 산새지기들은 월급을 가져가지 않는다. 오수연 산새지기는 “우리는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월급을 가져가기보다 산새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직업으로 만난 사람들

사회단체 활동가에서부터 대학 강사, 기자, 시의회 의원 등 산새지기들의 직업은 여러가지다. 강운정(43)씨는 천안NGO센터 사무국장, 오수연씨는 마을도서관 지킴이, 윤평호(42)씨는 기자, 이정화(50)씨는 전 생협 이사장, 장기수(46)씨는 천안시의회 의원, 정이은숙(42)씨는 천안KYC 공동대표다. 마지막에 합류한 정은정씨는 대학강사다.

직업이 다른 이들이 어떻게 같은 사업을 하게 됐을까. 오 산새지기는 “모두가 천안KYC 회원이었고 4명의 산새지기는 대학동문이라 서로 알고 지낸 게 오래 됐다”며 “고전 강독 모임을 하며 북카페를 생각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독서 모임을 함께하던 이들의 고민은 장소였다. 천안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50여 개 있었지만 어린이 중심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모임 회원 모두가 인문학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없는 지역사회에 대한 갈증을 호소했다.

윤평호(42) 산새지기가 “사고 한번 쳐보자!”며 북카페를 제안했다. 이들은 책을 통해 다양각색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



북카페 '산새'의 산새지기

북카페 장소는 우연찮게 마련했다. '산새'는 이들이 자주 만나던 돈가스 식당이었다. 마침 이들이 모여 어느 곳에 북카페를 차릴지 고민하고 있는데, 식당 주인으로부터 가게를 내놨다는 말을 들었다. 몇 년 동안 정들었던 식당인지라 그날 당장 계약금을 내고 건물을 모두 임대했다.

'산새'가 짓는 3층짜리 건물은 미술을 전공한 부부가 직접 공들여 만든 독특한 모양의 건물이다. 1층과 2층은 카페 겸 세미나 공간으로, 3층은 천안KYC·농민회·학교 급식협회의 사무실로 쓰고 있다.

윤씨는 기사를 그만두고 아예 '산새 대표지기'로 눌러 앉아 1년을 생활했다.

카페의 책은 산새지기 6명이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손님들이 기증한 책이 더 많다. 모두 3,000여권이 된다. 손님이 책을 더 읽고 싶으면 무료로 빌려준다. 한 달 안에 가져오면 된다.

이 모든 것은 책을 생활에서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북카페 '산새'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서적들

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천안과 아산 지역에 인문학을 알려내려는 바람으로 모아진다.

정은정 산새지기는 “‘산새’는 뭐든지 꿈꾸고 뭐든지 해보자는 원칙만 있을 뿐”이라며 “‘산새’가 마을카페의 모습을 하길 바란다. 지역에서 중요한 마을회관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바람을 이야기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5년 안에 천안아산 지역에 100곳의 북클럽을 만들자는 것이 북카페 산새의 목표다. 그 꿈을 품으며 지역 이곳저곳 청명한 소리를 전하기 위해 ‘산새’는 깃털을 가지런히 고르고 있다. [인터뷰 :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12월)			소 비(12월)	물 가(1월)		대외거래(1월)		고 용(1월)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55.5	147.6	164.5	145.1	106.9	107.3	45,681	45,205	24,901	24,054	3.4
서울	79.9	82.9	198.0	147.6	106.7	107.4	4,933	11,034	5,215	5,011	3.9
부산	136.7	127.5	155.7	143.2	108.4	108.3	968	1,336	1,713	1,639	4.3
대구	129.9	135.6	146.8	122.9	108.2	107.9	516	314	1,243	1,200	3.5
인천	110.4	112.1	153.9	131.7	106.0	106.4	2,135	3,680	1,466	1,382	5.7
광주	154.4	142.8	101.6	149.0	106.4	106.9	1,334	417	712	695	2.4
대전	123.9	125.9	101.5	132.0	107.0	107.3	310	320	745	716	3.9
울산	130.6	138.0	138.2	138.0	107.9	107.6	7,942	7,620	548	533	2.8
경기	215.7	179.5	243.1	143.1	106.4	107.0	7,702	8,269	5,936	5,743	3.2
강원	133.2	130.6	218.7	184.6	106.5	107.1	178	134	651	636	2.4
충북	172.9	185.0	234.7	176.3	106.9	107.2	1,010	580	705	689	2.3
충남	224.3	206.7	219.6	206.7	107.2	107.5	5,308	2,867	1,030	1,001	2.8
전북	138.3	138.9	146.6	148.2	107.6	107.7	830	388	831	810	2.4
전남	136.3	129.3	135.2	157.0	107.3	107.4	3,763	4,135	904	882	2.4
경북	105.1	108.7	153.1	146.0	107.3	107.0	4,445	1,403	1,326	1,278	3.6
경남	139.0	147.6	123.0	150.8	106.3	106.9	4,296	2,687	1,573	1,538	2.2
제주	97.8	89.4	123.2	164.1	106.1	106.5	9	22	305	300	1.7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경제 동향(요약)



- 12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며,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보다 상승
- 12월 충남경제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하락, 기업경기지수는 장기간 기준치보다 낮아 기업경기악화가 장기화되고 있음
- 산업활동은 전월대비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물가는 전월에 이어 상승세 지속, 수출과 고용 또한 감소세를 지속하여 지역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양상을 보임

경기

- 12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한 147.3을 나타냄
- 충남의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보다 0.2p 하락
- 2월 BSI는 제조업 상승, 비제조업 하락(제조업 74, 비제조업 64)
- 제조업 및 비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을 주된 기업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함
- 시장경기는 당월 체감지수 및 익월 전망지수가 전월보다 대부분 상승하여 명절 및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 시장경기가 다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산업활동

- 12월 광공업 생산지수 +0.7%(223.9), 재고지수 +1.1%(219.4) 전월대비 증가, 출하지수 -0.7%(219.4) 전월대비 감소
-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의 증가가 산업활동 증가에 기인

소비 및 물가

- 12월 대형소매점판매액 전월대비 12.3% 증가한 149,883백만원, 지수는 206.7을 나타냄
- 1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59,321대로 전월대비 0.4%(+3,570) 증가
- 1월 소비자물가지수 107.5(+0.6%), 생활물가지수 107.2(+0.6%) 전월보다 상승

수출입

- 1월 수출은 전월대비 0.8% 감소(53억8백만달러, 반도체 -20.4%, 평판디스플레이및 센서 -4.8%, 석유제품 +30.7% 등)
- 수입은 전월대비 1.5% 증가(28억67백만달러, 석유제품 +20.0%, 석탄 +15.8% 등)
- 12월 무역수지는 24억41백만달러 흑자(전월대비 83백만달러 감소)

고용

- 1월 경제활동인구는 전월대비 2.3% 감소, 경제활동참가율 58.2%로 전월대비 1.7%p 감소
- 취업자는 전월대비 3.0% 감소한 1,001천명(농림어업 94천명, 광공업 230천명, 건설업 68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205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17천명 등)
- 1월 실업률 2.8%로 전월대비 0.6%p 상승, 실업자 29천명으로 전월대비 24.8% 증가

금융

- 12월 금융기관 수신 증가세, 여신 감소폭 축소
- 12월 금융기관 총 수신증감액 +6,782억원, 여신증감액 -349억원
- 1월 어음부도율 0.97%로 전월보다 0.21%p 하락
- 1월 부도금액 107억 1천만원으로 전월보다 64억 감소

건설 및 부동산

- 1월 건축허가면적은 전월대비 -69.1%(462,034m²), 착공면적 -81.1%(82,466m²) 모두 감소
- 1월 토지거래는 9,775건으로 전월대비 27.6%, 면적 5.0% 모두 감소
-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 112.1로 전월대비 0.2%, 전세가격지수 118.8로 전월대비 0.8% 각각 상승(주요상승지역; 천안동남구, 아산, 논산)

1.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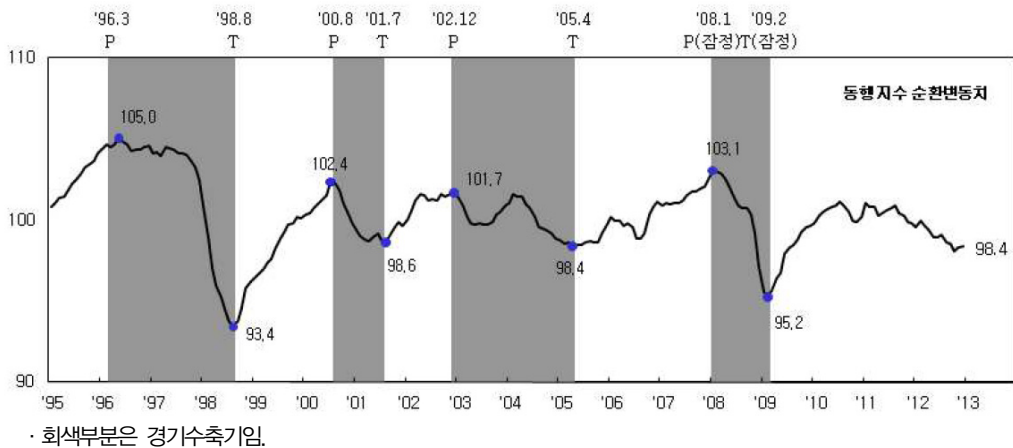
[전국 경기동향]

- 12월 동행종합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는 감소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5%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 추이

(2005=100)

구분	'12.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 동행종합지수	143.5	144.1	145.0	144.9	145.5	145.4	146.3	147.1
· 전월비(%)	-0.1	0.4	0.6	-0.1	0.4	-0.1	0.6	0.5
○ 순환변동치	98.9	98.9	99.1	98.6	98.6	98.1	98.3	98.4
· 전월차(p)	-0.5	0.0	0.2	-0.5	0.0	-0.5	0.2	0.1



- 12월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을 제외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9%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4p 상승

선행종합지수 추이

구분	'12.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 선행종합지수	141.3	142.8	143.7	144.0	143.7	143.9	145.0	146.3
· 전월비(%)	0.1	1.1	0.6	0.2	-0.2	0.1	0.8	0.9
○ 순환변동치	99.4	100.1	100.3	100.1	99.4	99.2	99.5	99.9
· 전월차(p)	-0.4	0.7	0.2	-0.2	-0.7	-0.2	0.3	0.4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p 하락한 99.2를 나타냄
 - 지난달 상승세로 전환한 동행종합지수는 그 증가세를 지속하여 147.3을 나타냄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 %p)

구 분	'12.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 동행종합지수	145.2	145.8	146.1	145.9	146.7	146.5	147.1	147.3
· 전월비(%)	0.9	0.5	0.2	-0.1	0.5	-0.1	0.4	0.2
○ 순환변동치	100.2	100.3	100.1	99.7	99.8	99.4	99.4	99.2
· 전월차(p)	0.5	0.1	-0.2	-0.4	0.1	-0.4	0.0	-0.2

주 : p는 잠정치임.

- 12월 충남의 경기동향은 대형소매점판매지수 및 수출액 증가가 지속되었으나, 그 폭이 다소 축소되었음. 또한 계절적인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던 비농가취업자수가 감소세로 반전, 산업생산지수 역시 감소폭이 확대되어 지역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냄
 - 대형소매점판매지수(+2.7%), 수출액(+1.7%) 증가, 전력사용량 및 수입액 보합
 - 비농가취업자수(-0.1%), 산업생산지수(-0.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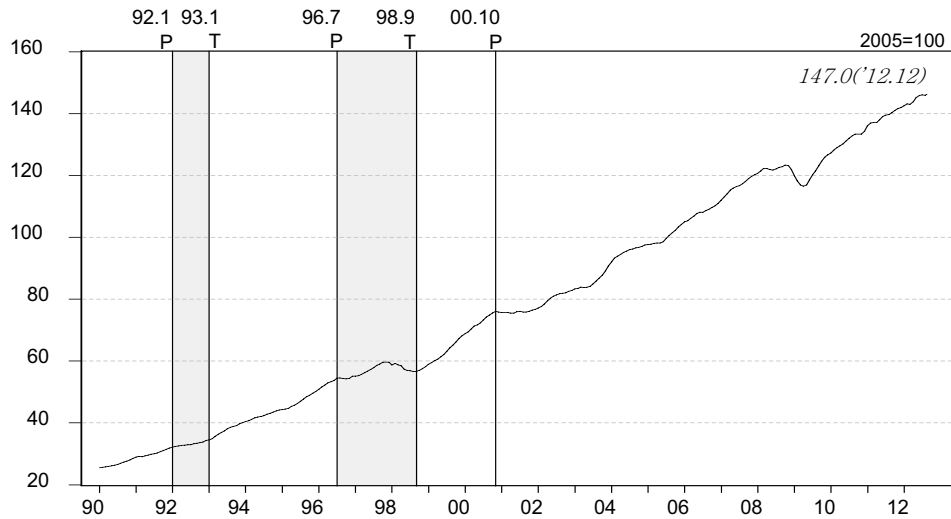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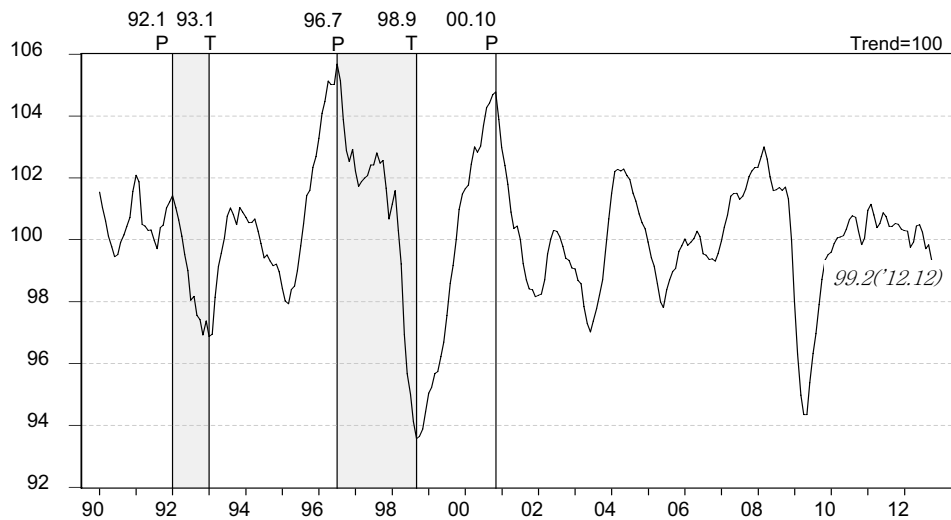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2.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비농가취업자수	0.9	0.2	0.6	0.4	1.2	0.6	0.4	-0.1
산업생산지수	-0.4	0.0	-0.8	-1.4	-1.4	-1.3	-0.2	-0.3
대형소매점판매지수	0.3	-0.7	1.2	0.8	3.2	0.2	3.0	2.7
전력사용량	1.8	1.7	0.5	0.8	-0.4	-0.7	-0.3	0.0
수출액(실질)	4.6	4.4	0.7	-0.3	0.2	2.8	3.0	1.7
수입액(실질)	2.5	-0.1	-1.5	-2.9	1.9	-2.6	-1.1	0.0

주 :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2013.2월 충남지역 제조업 업황BSI, 자금사정전망BSI 모두 상승
 - 제조업 업황BSI는 74로 전월(69)보다 5p 상승, 자금사정전망BSI는 83으로 전월(76)보다 7p 상승
- 2013.2월 충남지역 비제조업 업황BSI 하락, 자금사정전망BSI 상승
 - 비제조업 업황BSI는 64로 전월(69)보다 5p 하락, 자금사정전망BSI는 82로 전월(74)보다 8p 상승
 - 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 및 자금사정전망은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기준치(100)을 크게 밑돌고 있어 여전히 기업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내수 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의 원인으로 분석됨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2.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1월	2월	전월대비 변동폭
업황 ¹⁾	79	82	81	78	73	69	74(72)	+5(+2)
충 남 ²⁾	-	-	-	-	-	69	74	+5
매출	93	100	98	90	89	88	85	-3
생산	96	99	97	93	94	91	96	+5
신규수주	92	97	96	88	93	92	91	-1
채산성	85	87	88	86	89	84	87	+3
제품재고	107	103	100	102	105	110	108	-2
인력사정	93	90	92	92	95	94	90	-4
자금사정 ¹⁾	94	92	93	88	86	78	84(83)	+6(0)
충 남 ²⁾	-	-	-	-	-	76	83	+7
외부자금수요	109	109	104	104	110	114	110	-4
자금조달사정	93	92	93	92	90	86	92	+6

주 : () 내는 전국 기준, 업황 및 자금사정을 제외한 수치는 대전충남의 통합 수치임.

1) 대전·충남 업황 수치

2) 기존 대전·충남 통합하여 공표하였던 업황 및 자금사정BSI가 2012년 1월부터 지역이 분리되어 공표됨.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2.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1월	2월	전월대비 변동폭
업황	66	62	70	65	66	68	65(70)	-3(+2)
충 남	-	-	-	-	-	69	64	-5
매출	74	74	81	78	78	79	78(81)	-1(+3)
채산성	81	76	83	86	89	78	82(85)	+4(+9)
인력사정	85	91	87	81	92	90	88(91)	-2(+1)
자금사정	88	85	86	82	82	80	85(84)	+5(+6)
충 남	-	-	-	-	-	74	82	+8
외부자금수요	110	111	111	112	113	109	103	-6
자금조달사정	89	88	94	91	90	84	90	+6

$$BSI^*(\text{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시장경기 동향]

- 2013.1월 충남지역 시장경기는 마진, 매입원가, 상품판매가격을 중심으로 체감경기가 상승
 - 상승지수 : 마진(+3.0p), 매입원가(+9.6p), 상품판매가격(+2.7p)
 - 하락지수 : 업황(-2.6p), 매출(-1.7p), 자금사정(-2.1p), 구매고객수(-3.9p)
 - 2월 명절의 영향으로 인해 1월 체감경기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대형마트의 영향이 시장경기 호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조사됨
- 2013.2월 충남지역 시장경기 전망은 매입원가와 상품판매가격 지수를 제외한 모든 지수가 전월보다 상승
 - 상승지수 : 업황(+32.1p), 매출(+43.8p), 마진(+28.7p), 자금사정(+20.0p), 구매고객수(+41.2p)
 - 하락지수 : 매입원가(-0.9p), 상품판매가격(-2.8p)
 - 2월은 명절효과와 날씨가 따뜻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업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경기침체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

시장경기 체감 및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12.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1월	2월(전망)
업황	전국	44.7	69.3	54.3	61.0	52.2	42.2	82.6
	충남	52.9	72.4	76.9	82.7	44.5	41.9	104.1
매출	전국	43.7	68.8	54.4	66.4	54.7	41.4	87.5
	충남	46.2	76.5	72.7	90.3	40.6	38.9	110.4
마진	전국	43.4	67.9	58.6	66.9	56.3	46.8	81.7
	충남	53.9	70.4	73.7	83.5	48.3	51.3	101.3
매입 원가	전국	123.6	132.6	120.8	128.8	125.8	132.6	118.4
	충남	131.6	139.4	115.2	134.5	127.6	137.2	122.6
상품 판매가격	전국	90.3	100.9	96.4	105.6	98.8	98.2	99.3
	충남	97.9	105.3	94.9	111.2	107.3	110.0	105.4
자금 사정	전국	40.0	66.2	54.9	63.2	53.3	48.8	77.6
	충남	46.0	62.9	71.1	77.0	51.9	49.8	96.4
구매 고객수	전국	42.5	69.1	50.9	63.5	52.6	40.7	86.2
	충남	47.3	74.0	66.3	85.0	43.1	37.2	111.5

주 : 당월을 제외한 수치는 체감지수를 나타냄(당월 : 전망지수).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2. 산업활동

[광공업 산업활동]

- 12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3% 감소, 전월대비 0.7% 증가
 -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
- 출하, 재고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출하의 감소폭이 확대됨
 - 출하는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이 감소
 - 재고는 섬유제품, 제1차금속 등이 증가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나무제품, 전기장비 등의 업종이 감소

광공업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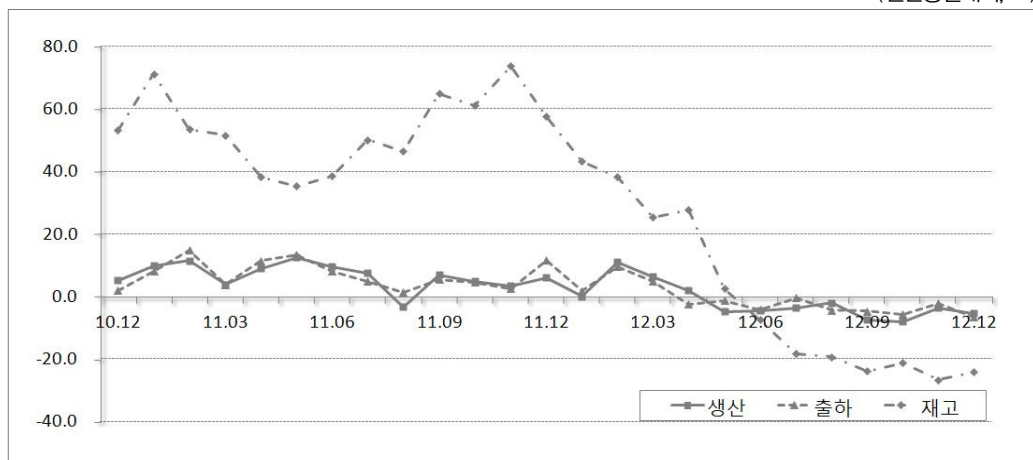
(2005=100.0, %)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2월	9월	10월	11월 ^P	12월 ^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생산	153.7	148.3	153.7	158.6	154.9	0.8	1.0	
	출하	147.0	142.8	144.7	148.3	146.1	0.8	2.1	
	재고	163.6	156.6	159.3	162.7	163.9	0.2	-0.9	
충남	생산	236.5	217.9	230.1	230.5	223.9	-5.3	0.7	
	출하	221.6	205.5	213.1	213.9	219.4	-6.6	-0.7	
	재고	289.6	197.4	214.3	211.3	219.4	-24.2	1.1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통계청.

충남의 광공업 산업 활동 추이

(전년동월대비, %)



3. 소비 · 물가

[소비]

- 12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7.4%, 전월보다 12.3% 각각 증가
 - 대형소매점 경성판매액은 149,883백만원, 지수는 206.7을 나타냄
 - 전년동월대비 대형소매점 전체 판매액은 7.4% 증가, 충남지역의 사업체당 대형소매점 평균판매액은 10,938백만원의 59.6% 수준으로 나타남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경성금액,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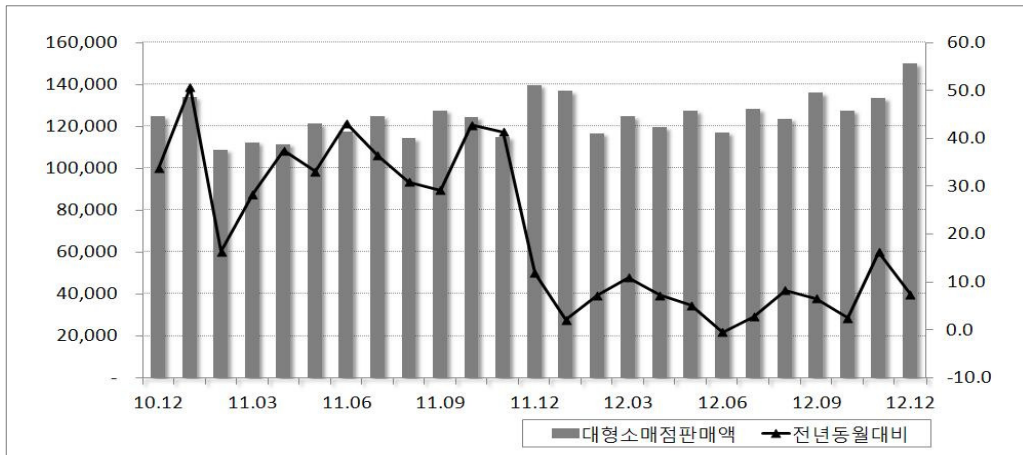
구 분	2011년	2012년				증감률	
	12월	9월	10월	11월 ^o	12월 ^o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6,086,970	5,929,926	5,531,692	5,813,681	6,256,531	2.8	7.6
충 남	139,613	135,939	127,452	133,475	149,883	7.4	12.3

주 : 기 공표되었던 대형마트판매액은 2012.10월부터 공표 중단.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단위 : 백만원, %)



주 : 대형소매점판매액(좌축), 전년동월대비(우축).

[자동차 등록]

- 2013.1월 충남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전년동월대비 1.7% 감소, 전월대비 0.4% 증가
 - 11월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859,321대로 전년동월보다 14,698대 감소, 전월보다 3,570대 증가
 - 화물차(0.0%)를 제외한 승용차(+0.4%), 승합차(+0.5%), 특수화물(+0.2%) 모두 전월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전년동월대비 특수화물(+1.4%)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1.7%), 승합차(-0.9%), 화물차(-5.9%)는 등록대수 감소

* 전년동월대비 등록대수 감소에는 2012. 7월 세종시출범으로 인한 영향에 기인함.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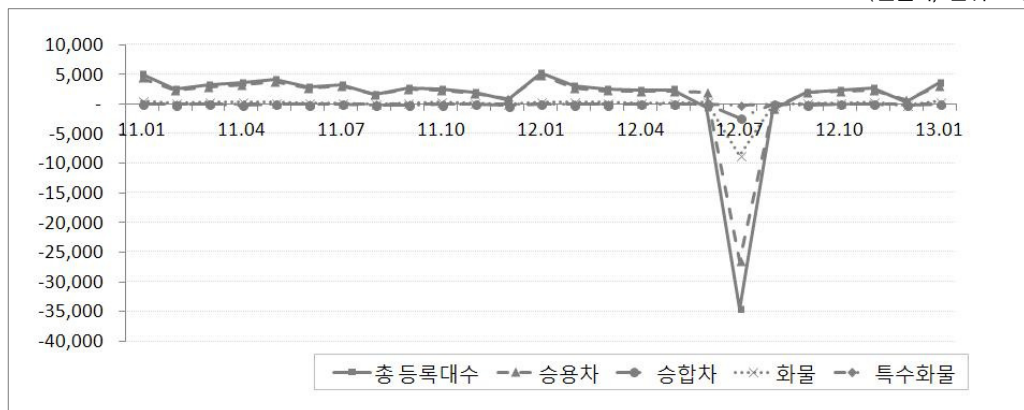
(단위 : 대)

구분		2012년				2013년	증 감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74,019	852,628	855,322	855,751	859,321	-14,698	3,570
차 종 별	승용	624,415	612,698	615,090	615,770	618,881	-5,534	3,111
	승합	49,661	46,930	46,900	46,751	46,739	-2,922	-12
	화물	197,073	190,135	190,447	190,331	190,790	-6,283	459
	특수화물	2,870	2,856	2,885	2,899	2,911	41	12
용 도 별	자가용	831,710	812,836	815,333	815,822	819,345	-12,365	3,523
	관용	4,014	4,036	4,063	4,094	4,093	79	-1
	영업용	38,295	35,756	35,926	35,825	35,883	-2,412	58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주 : 2012.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연기군 및 공주시 일부가 충청남도과 분리됨에 따라 7월 자동차등록대수가 급감하였음.

[물가]

- 2013. 1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7.5로 전년동월대비 1.9%, 전월대비 0.6% 각각 상승
 - 농축수산물(+1.8%), 공업제품(+1.7%), 서비스(+1.9%) 등 주요 품목의 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대부분 상승하였고, 그 폭이 다소 확대되어 물가 상승세 지속
- 생활물가지수는 107.2로 전년동월대비 1.2%, 전월대비 0.6%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17.3으로 전년동월대비 10.7%, 전월대비 4.7% 각각 상승
 - 신선어개 106.9(+0.1%), 신선채소 120.1(+35.9%), 신선과실 122.9(+2.4%), 기타신선 109.0(-6.0%)

*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소비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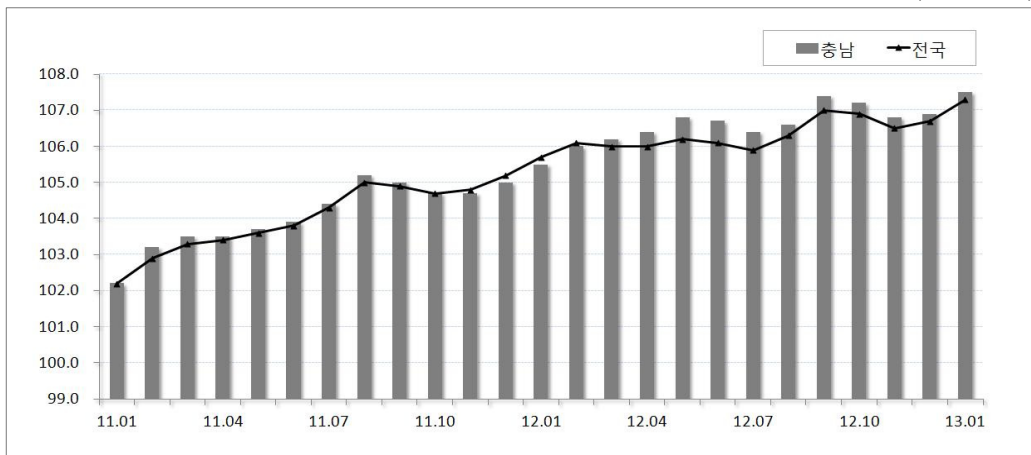
(2010=100,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05.7	106.9	106.5	106.7	107.3	1.5	0.6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05.5	107.2	106.8	106.9	107.5	1.9	0.6
상 품 상 조 별	상 품		107.9	109.8	109.0	109.1	109.8	1.8	0.6
	서비스		103.2	104.6	104.6	104.8	105.2	1.9	0.4
	생활물가지수		105.9	107.2	106.5	106.6	107.2	1.2	0.6
	신선식품지수		106.0	118.8	109.5	112.0	117.3	10.7	4.7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4. 수출입

[수출입]

- 2013.1월 충남의 수출은 53억8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6.3% 증가, 전월대비 0.8% 감소
 - 주요 수출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는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감소세를 보였던 석유 제품 역시 증가세로 전환하여 충남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확대되었음
- 2013.1월 충남의 수입은 28억67백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1.5% 각각 증가
 - 대부분의 수입품목의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석탄 역시 감소폭이 축소되어 1월 충남의 수입은 증가세로 전환하였음
 - 1월 충남의 무역수지는 24억41백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수출이 지난달에 비해 소폭 감소한 영향으로 무역수지가 지난달 보다 감소함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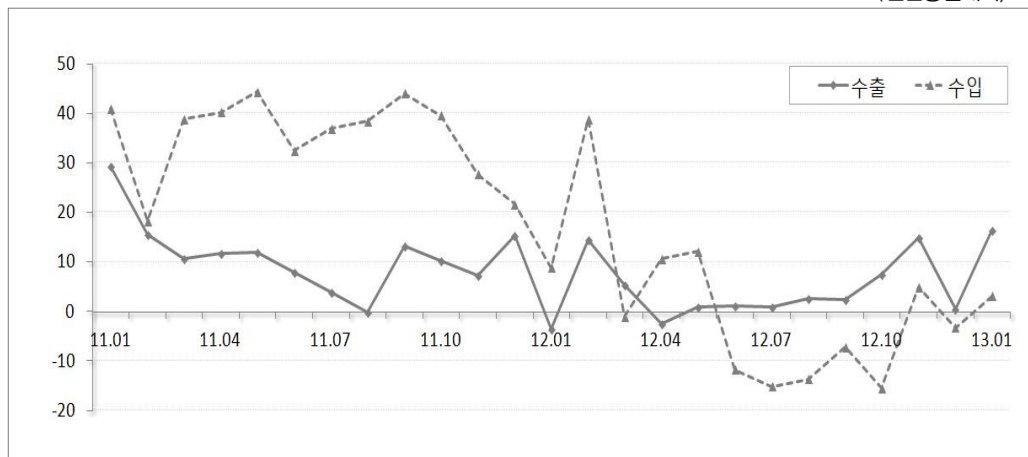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41,210	47,090	47,789	45,032	45,681	10.8	1.4
	수입	43,502	43,395	43,384	43,109	45,205	3.9	4.9
	무역수지	-2,292	3,695	4,405	1,923	476	-	-
충남	수출	4,563	5,918	5,742	5,350	5,308	16.3	-0.8
	수입	2,781	2,396	2,875	2,826	2,867	3.1	1.5
	무역수지	1,782	3,522	2,867	2,524	2,441	-	-

자료 : 지역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전년동월대비, %)



1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¹⁾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5,308	16.3	-0.8	100.0
1	반도체	1,173	-14.7	-20.4	22.1
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048	28.2	-4.8	19.7
3	석유제품	520	28.3	30.7	9.8
4	전자응용기기	371	18.6	-4.4	7.0
5	석유화학중간원료	263	65.2	29.6	5.0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1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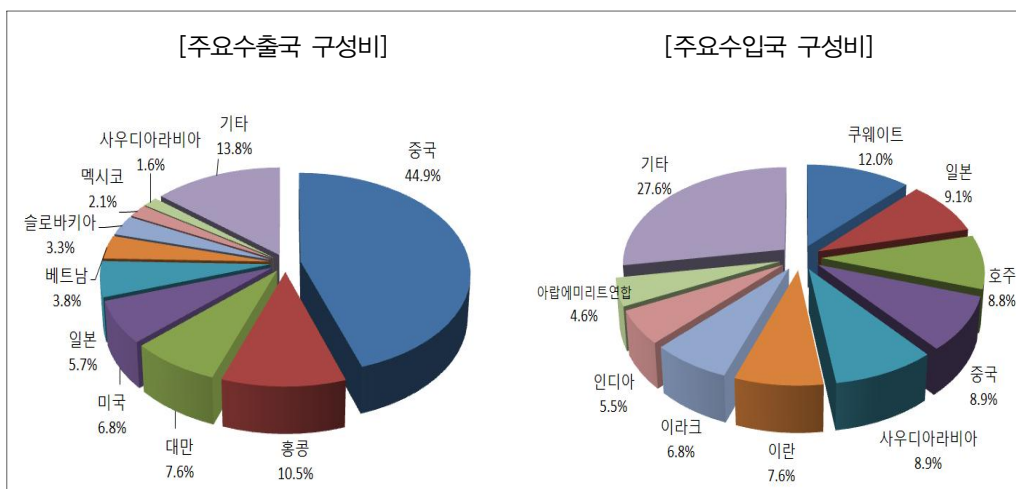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¹⁾	수입액	증 감 율		수입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2,867	3.1	1.5	100.0
1	원유	1,332	4.0	-8.8	46.5
2	석유제품	384	35.1	20.0	13.4
3	석탄	205	-47.5	15.8	7.2
4	기초유분	77	51,783.1	196.2	2.7
5	정밀화학원료	52	20.2	6.1	1.8

주 : 1) MTI 3단위 기준.

자료 : 지역의 품목별 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1월 국가별 수출입 현황



자료 : 지역의 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5. 고 용

[경제활동인구]

- 2013.1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15세이상인구는 1,768천명으로 전년동월(1,671천명)보다 67천명(+5.8%)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030천명으로 전년동월(959천명)보다 71천명(+7.4%)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58.2%로 전국평균에 약간 못 미치고 있으며,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전월대비 1.7% 하락하여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량)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경제 활동 인구	전국	24,585	25,787	25,652	25,139	24,901	1.3	-0.9
	충남	959	1,128	1,117	1,054	1,030	7.4	-2.3
	남자	572	664	656	636	624	9.1	-1.9
	여자	386	464	461	418	405	4.9	-3.1
경제 활동 참가율	전국	59.5	61.8	61.4	60.1	59.5	0.0	-0.6
	충남	57.4	64.7	63.8	59.9	58.2	0.8	-1.7
	남자	69.1	76.3	75.2	72.4	70.7	1.6	-1.7
	여자	45.8	53.1	52.5	47.5	45.8	0.0	-1.7

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취업자]

- 2013.1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00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 증가, 전월대비 3.0%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청년층 취업자는 170천명, 고령층 취업자는 230천명으로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5천명(+17.0%), 고령층 취업자는 26천명(+12.8%) 증가
- 산업별 취업자는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증가세를 나타냄
 - 농림어업 94천명(17.4%), 광공업 230천명(+9.2%), 건설업 68천명(+1.5%), 도소매·음식숙박업 205천명(+7.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17천명(+10.6%)으로 대부분의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수의 감소세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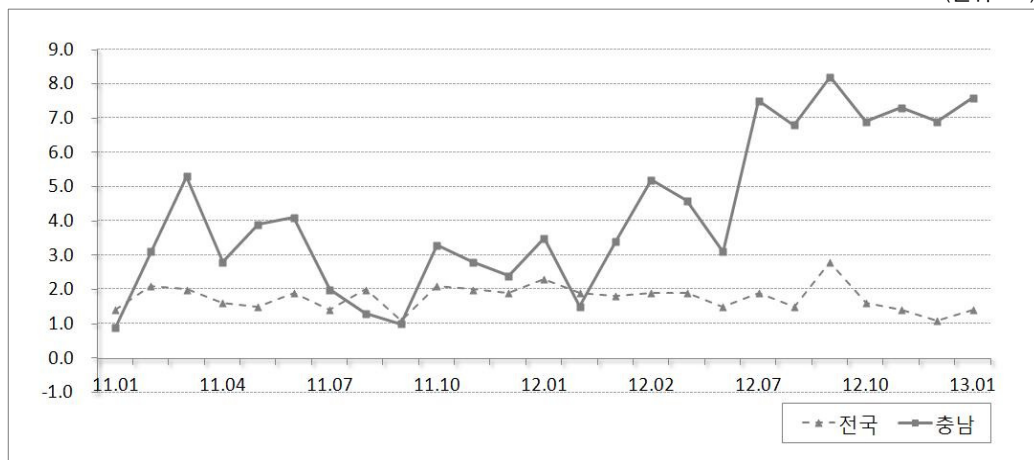
연령별·산업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 동월비	전월비
합계	전 국	23,732	25,069	24,941	24,402	24,054	1.4	-1.4
	충 남	930	1,110	1,097	1,031	1,001	7.6	-3.0
청년층 (15~29세)	전 국	3,899	3,741	3,762	3,755	3,817	-2.1	1.7
	충 남	145	169	170	171	170	17.0	-0.8
고령층 (55세이상)	전 국	4,612	5,648	5,536	5,133	4,906	6.4	-4.4
	충 남	204	318	311	249	230	12.8	-7.6
	55~59세	85	103	101	95	94	9.7	-1.2
	60세이상	119	215	210	154	136	13.7	-12.2
산업별	농림어업	80	189	185	116	94	17.4	-19.0
	광공업	211	217	225	228	230	9.2	0.9
	건설업	67	75	70	73	68	1.5	-6.2
	도소매 음식숙박업	190	207	204	199	205	7.9	2.6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287	331	327	330	317	10.6	-3.9
	전기·운수· 통신금융업	97	90	87	86	87	-9.7	1.8

취업자 증감률 추이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2013.1월 충남의 실업자는 2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전월대비 0.6%p 상승

6. 금 용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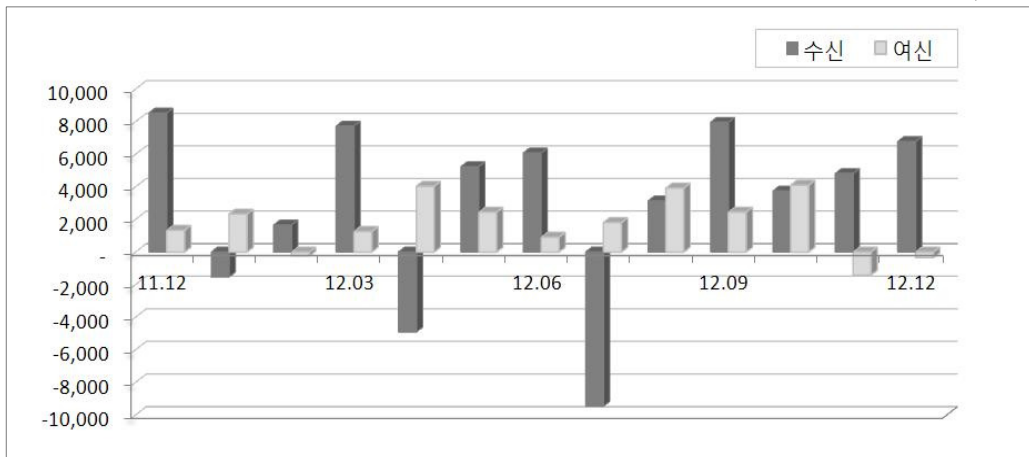
- 12월중 충남의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7조 6,102억원, 비은행기관 29조 7,849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수신잔액은 47조 3,951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예금은 상여금 등 연말자금에 요구불예금을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증가하였으나, 일부기업의 부채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대규모 인출 등으로 시장성 수신은 큰 폭으로 감소 [11월 +3,619억원 → 12월 +2,837억원]
 - 비은행기관 : 상여금 등 연말자금 유입으로 우체국예금, 상호금융 등의 호조 지속으로 비은행기관 수신잔액 증가폭 확대 [11월 +1,201억원 → 12월 +3,945억원]
 - 총 수신증감액 : 11월 +4,820억원 → 12월 +6,782억원

[여신]

- 12월중 충남의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29조 7,849억원, 비은행기관 15조 7,286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잔액은 40조 4,320억원을 나타냄
 - 예금은행 :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이 천안, 아산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실행,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를 앞둔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크게 늘었으나, 기업의 연말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 상환 등으로 예금은행 여신 감소폭 확대 [11월 -811억원 → 12월 -1,918억원]
 - 비은행기관 : 연말 일시자금 수요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저축은행의 가계 자금수요 등으로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세로 전환 [11월 -599억원 → 12월 +1,569억원]
 - 총 여신증감액 : 11월 -1,410억원 → 12월 -349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어음부도]

- 2013.1월 충남의 부도율은 0.97%로 전월대비 0.21%p 하락
 - 지역별로는 천안 2.18%, 공주 1.06%, 홍성 1.09%, 아산 0.35%, 당진 0.00%, 서산 0.02%의 부도율을 나타냄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연중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대비 등락	전년동월대비 등락
충 남	0.38	0.18	0.25	0.75	1.18	0.97	-0.21	0.79
천 안	0.47	0.21	0.32	1.83	1.39	2.18	0.79	1.97
공 주	0.41	0.00	0.31	0.22	0.86	1.06	0.20	1.06
홍 성	0.09	0.00	0.10	0.00	0.19	1.09	0.90	1.09
아 산	0.35	0.85	0.25	0.24	0.34	0.35	0.01	-0.50
당 진	1.49	0.00	0.00	0.00	7.08	0.00	-7.08	0.00
서 산	0.01	0.00	0.00	0.00	0.00	0.02	0.02	0.02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2013.1월 중 부도금액은 107억 1천만원으로 전월보다 64억 감소
 - 제 조 업 : 12월 162억 3천만원 → 1월 100억 3천만원
 - 건 설 업 : 12월 8천만원 → 1월 3천만원
 - 서비스업 : 12월 7억 4천만원 → 1월 6억 1천만원
- 2013.1월 중 부도업체수는 2개로 전월(2개)과 동일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부 도 금 액	제조업	4.7	23.3	75.3	162.3	100.3	95.6	-62.0
	건설업	3.1	0.1	1.1	0.8	0.3	-2.8	-0.5
	서비스업	8.7	6.0	3.9	7.4	6.1	-2.6	-1.3
	기타	6.6	0.3	1.0	0.6	0.4	-6.2	-0.2
	합계	23.2	29.7	81.3	171.1	107.1	83.9	-64.0
부 도 업 체 수	제조업	0	3	1	1	1	1	0
	건설업	0	0	0	0	0	0	0
	서비스업	0	0	2	1	1	1	0
	기타	0	0	0	0	0	0	0
	합계	0	3	3	2	2	2	0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신설법인수]

- 2013.1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248개로 전월(193개)보다 55개 증가

7. 건설 ·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2013.1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462,034㎡로 전년동월대비 17.3%, 전월대비 69.1% 각각 감소
 - 1월 허가면적 구성비 : 주거용 43.5%, 공업용 25.5%, 상업용 12.0%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m²)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558,630	482,405	659,328	1,492,930	462,034	-17.3	-69.1
주거용	205,121	123,023	266,283	938,991	20,1174	-1.9	-78.6
상업용	82,998	105,478	140,170	216,303	55,309	-33.4	-74.4
농수산용	71,065	39,300	45,922	63,096	34,280	-51.8	-45.7
공업용	113,229	148,697	143,699	81,714	117,613	3.9	43.9
기 타	86,217	65,907	63,254	192,826	53,658	-37.8	-72.2

자료 :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통계현황, 충청남도.

- 2013.1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82,466㎡로 전년동월대비 83.7%, 전월대비 81.1% 각각 감소
 - 1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 64.3%, 상업용 15.2%, 농수산용 7.0%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m²)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507,442	437,787	647,657	436,483	82,466	-83.7	-81.1
주거용	86,328	114,421	100,057	117,348	1,786	-97.9	-98.5
상업용	50,522	65,491	63,546	60,533	12,555	-75.1	-79.3
농수산용	36,771	54,232	69,679	32,158	5,777	-84.3	-82.0
공업용	50,494	95,754	179,701	125,125	53,066	5.1	-57.6
기 타	283,327	107,889	234,674	101,319	9,282	-96.7	-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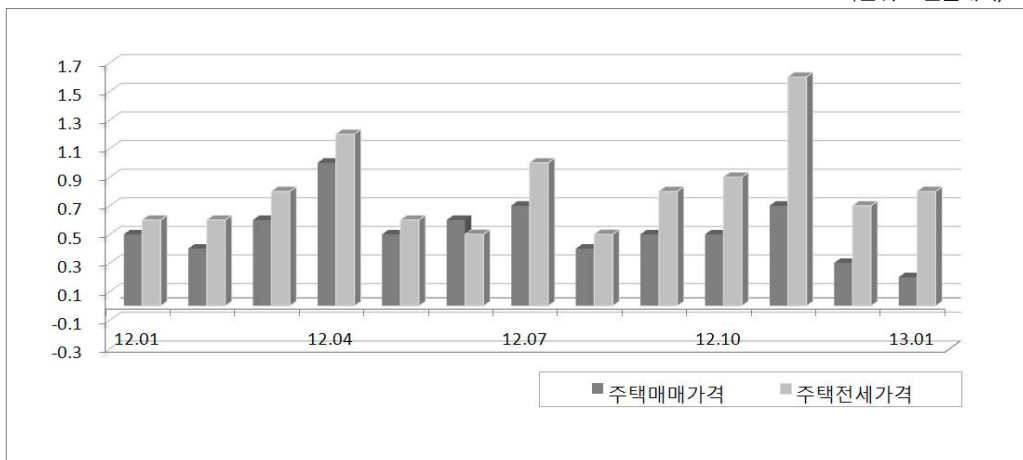
자료 : 건축허가 및 건축착공통계현황, 충청남도.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2013.1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12.1로 전년동월대비 6.5%, 전월대비 0.2% 각각 상승
 - 천안시의 경우 신규물량 공급의 부진으로 수요 대비 물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근 산업단지와 세종시로의 출퇴근 직장인 수요와 매매 선회 수요도 발생되어 상승세 지속
 - 매매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천안 동남구(+0.6%) 및 아산(+0.2%) 지역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
- 2013.1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8.8로 전년동월대비 10.5%, 전월대비 0.8% 각각 상승
 - 논산시의 경우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였고, 아산시는 세종시로 출퇴근하려는 수요의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봄 이사철을 대비하여 미리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의 발생 등으로 상승하였음
 -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논산(+1.5%), 아산(1.1%) 지역이며,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 모두 상승세를 이어감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토지거래]

- 2013.1월 충남의 토지거래는 9,77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6%, 전월대비 27.6% 각각 감소
 - 토지거래 면적은 14,348천㎡로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 전월대비 5.0% 감소

토지거래

(단위 : 건, 천㎡, %)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률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필 지	10,698	11,588	13,281	13,509	9,775	-8.6	-27.6
면 적	12,517	13,496	15,317	15,102	14,348	14.6	-5.0

자료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국토해양부

해외 경제 동향(요약)



- 중국 등은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나, 미국 재정불안 ·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유로지역은 이탈리아 조기총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 가능성, 상반기 중 국채만기 도래 집중 등의 하방위험이 지속

미국

- 미국 경제는 4/4분기 성장률(전기비연율)이 -0.1%로 '09.2/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 주택가격이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12년 기존주택판매 규모가 5년래 최대치 기록

중국

- 중국 경제는 수출과 소비·생산이 증가세 지속하면서 4분기 성장률이 2년만에 반등
- 그 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11월 이후 반등하여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일본

- 일본 경제는 수출 부진 지속으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적자 기록
- 소매판매·산업생산 등을 중심으로 실질지표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유로지역

- 유로 경제는 2분기 연속 성장률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음
- 제조업 PMI가 17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하였고, 소매판매는 소폭 반등함

1. 미 국

- 미국 경제는 2012년 4/4분기 성장률 -0.1%(전기비연율)를 나타냄
- 12월 미국의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증가
 - 12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하였으며, ISM제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치 (50)를 상회하며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냄
- * ISM제조업지수 : ('12.7)49.8, (8)49.6, (9)51.5, (10)51.7, (11)49.5, (12)50.2, ('13.1)53.1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7%, 생산자물가는 1.3% 각각 증가
 -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가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임
- 실업률은 7.8%를 나타내며 11월과 보합세를 나타냄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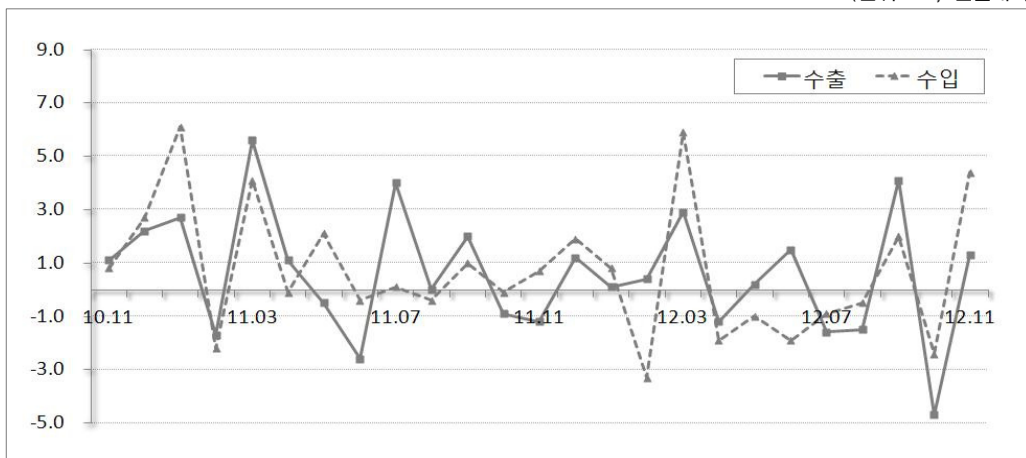
(단위 : %, 전월대비)

구분	2012년	2012년					
	연간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산업생산	3.6	0.7	-1.0	0.2	-0.3	1.0	0.3
소매판매	5.0	0.7	1.0	1.2	-0.2	0.4	0.5
물가 ¹⁾	생산자 ²⁾	1.9	0.5	1.9	2.1	2.3	1.5
	소비자	2.1	1.4	1.7	2.0	2.2	1.8
무역	수 출	-	-1.6	-1.5	4.1	-4.7	1.3
	수 입	-	-0.9	-0.5	2.0	-2.4	4.4
실업률 ³⁾	8.1	8.2	8.1	7.8	7.9	7.8	7.8
주가지수 ⁴⁾	131,04.1	13,008.7	13,090.8	13,437.1	13,096.5	13,025.6	13,104.1

주 : 1) 전년동월대비 2) 최종재 기준 3) 군인 제외,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다우존스 공업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2), 기획재정부 / 지역경제동향(2013.1), 한국은행

미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2. 중 국

- 중국 경제는 4/4분기 성장률 7.9%(전년동기대비)를 나타냄
 - 전분기(7.4%)에 비해 0.5%p 상승하며, 성장률이 2년만에 반등함
- 10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
 - 중국의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매판매역시 전년동월대비 15.2% 증가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증가, 생산자물가는 1.9% 감소
 - 생산자물가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는 증가폭이 확대됨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1%, 수입은 6.0% 각각 증가
 - 11월 다소 주춤하였던 수출 증가세가 12월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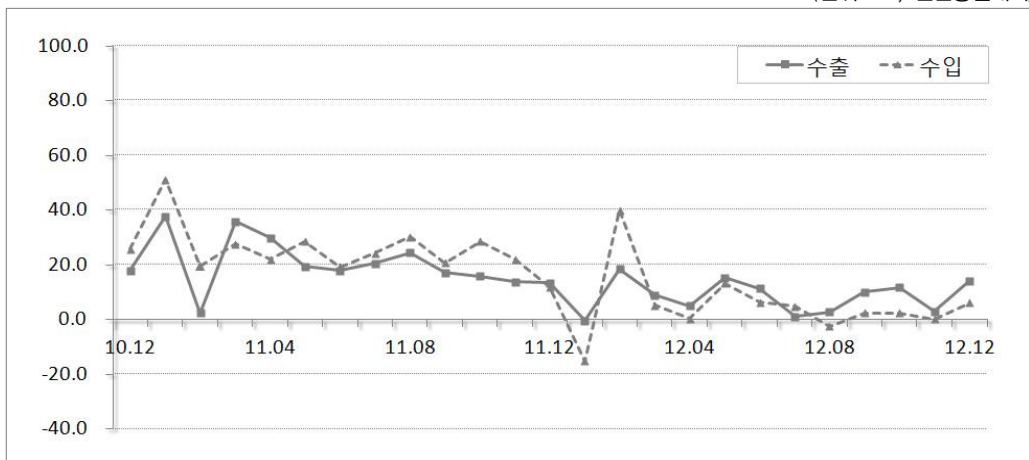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2년					
		연간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산업생산		10.0	9.2	8.9	9.2	9.6	10.1	10.3
소매판매		14.5	13.1	13.2	14.2	14.5	14.9	15.2
물가	생산자	-1.7	-2.9	-3.5	-3.6	-2.8	-2.2	-1.9
	소비자	2.6	1.8	2.0	1.9	1.7	2.0	2.5
무역	수 출	7.9	1.0	2.7	9.9	11.6	2.9	14.1
	수 입	4.3	4.7	-2.6	2.4	2.4	0.0	6.0
주가지수 ¹⁾		2265.90	2,109.91	2,047.52	2,086.17	2,068.88	1,980.12	2,265.90

주 : 1)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2), 기획재정부 / 지역경제동향(2013.1), 한국은행.

중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3. 일본

- 일본 경제는 3/4분기 성장률 -0.9%(전기대비)를 나타냄
-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8% 감소, 수입은 1.9% 증가
 - 수출 부진 지속으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 12월 일본의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2.5%, 소매판매 전년동월대비 0.4% 증가
-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1%, 생산자물가 0.6% 각각 하락
- 실업률은 4.1%를 나타내며 3개월 연속 보합세를 보이다 0.1%p 하락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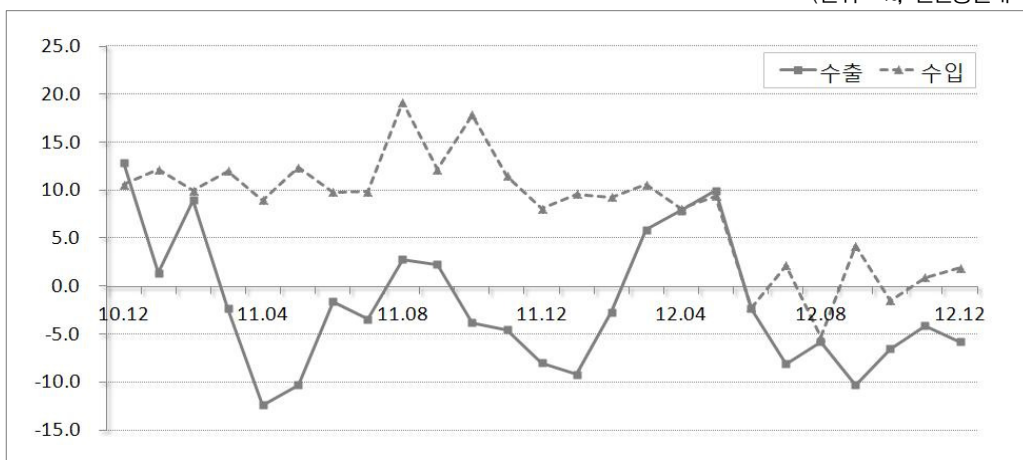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구분	2012년 연간	2012년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산업생산 ¹⁾	-	-1.0	-1.6	-4.1	1.6	-1.4	2.5
소매판매	-	-0.7	1.7	0.4	-1.2	1.2	0.4
물가	생산자	-0.8	-2.2	-1.9	-1.5	-1.0	-0.6
	소비자 ²⁾	0.0	-0.4	-0.4	-0.3	-0.2	-0.1
무역	수출	-2.8	-8.1	-5.8	-10.3	-6.5	-5.8
	수입	3.8	2.2	-5.3	4.2	-1.5	1.9
실업률 ³⁾	-	4.3	4.2	4.2	4.2	4.1	-
주가지수 ⁴⁾	10935	8,695	8,840	8,870	8,928	9,446	10,395

주 : 1) 전월대비, 광공업, 2005=100 2) 2005=100 3)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일경평균주가,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2), 기획재정부 / 지역경제동향(2013.1), 한국은행.

일본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4. 유로지역

- 유로지역 경제는 2012년 3/4분기 성장률 -0.1%(전기대비)를 나타냄
- 11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 소매판매는 0.1% 증가
 - 소매판매가 '12.4월 이후 최대 감소세를 보였으며, 제조업 PMI가 16개월 연속 기준치(50)를 하회하고 있음
- *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 구매관리자지수(기준치 : 50)
 - 기업들의 제조업 동향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사항들(신규주문, 생산, 재고, 출하량, 고용상태 등)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치화 한 지수.
- 실업률은 11.8%를 나타내며 전월보다 0.1%p 상승
 - 사상 최고 수준의 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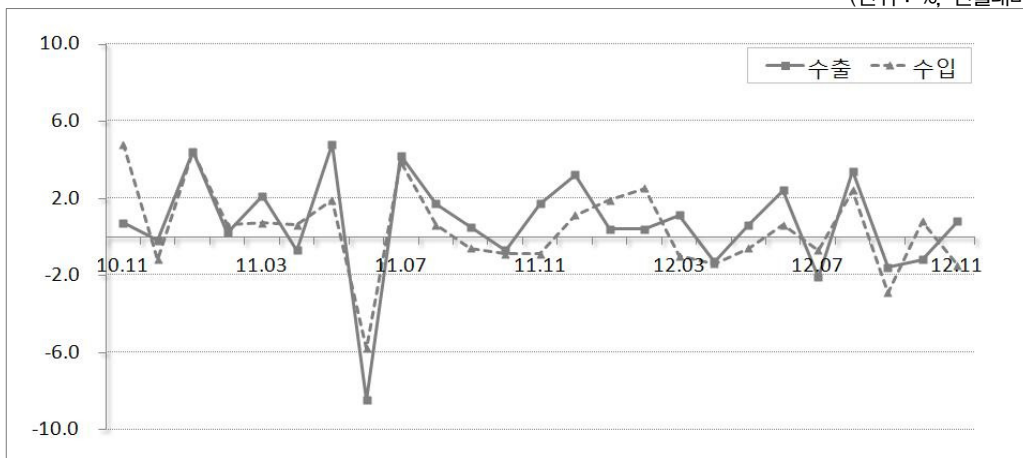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2년					
	연간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산업생산 ¹⁾	-	0.5	0.8	-2.3	-1.0	-0.3	-
소매판매	-	0.1	-0.2	-0.8	-0.7	0.1	-
물가 ²⁾	생산자	-	1.6	2.7	2.7	2.1	-
	소비자	2.5	2.4	2.6	2.6	2.2	2.2
무역	수 출	-	-2.1	3.4	-1.6	0.8	-
	수 입	-	-0.7	2.4	-2.9	-1.5	-
실업률 ³⁾	-	11.4	11.5	11.6	11.7	11.8	-
주가지수 ⁴⁾	2,635.9	2,325.7	2,440.7	2,454.3	2,503.6	2,575.3	2,635.9

주 : 1) 전산업(건설업 제외) 2) 생산자물가는 건설업 제외, 소비자물가는 종합소비자물가지수(HICP)기준 3) ILO 기준, 계절변동조정, 당월수치 4) Dow Jones EURO STOXX 50 Index, 기말기준

자료 : 월간경제동향(2013.2), 기획재정부 / 지역경제동향(2013.1), 한국은행

유로지역의 수출입 추이

(단위 : %, 전월대비)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3.2.26]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민경자, 이하 ‘여성정책개발원’)은 2월 26일 오후 2시 여성정책개발원 대강당에서 “2012년도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
 -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여성·가족분야’, ‘여성인력개발’, ‘다문화’, ‘사회복지’, ‘성평등·성주류화’의 5개 분야 총 9개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성과를 발표
 - 성과보고회에서 발표할 과제들은 지방 여성정책 및 다문화정책의 변화와 발전방안, 충남 가족실태조사, 사회적기업의 여성친화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3농혁신, 노인, 장애인 등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연구 등이 포함
 - 이번 연구성과 보고회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를 널리 알리고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
 - 한편, 연구성과 보고회에는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보건국 등 관계부서의 담당공무원과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연구과제별 발표 이후 분야별로 향후 발전 방향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논의

['13.2.22] 지능형 행정정보화로 스마트 도정 실현

- 충남도는 2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촉진협의회(위원장 전병욱 자치행정국장)를 개최하여 앞으로 2년을 임기로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보화사업을 심의하고 IT정책을 지문화할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7명의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을 위촉
 - 새로 위촉한 위원으로는 ▲정재일 한양대 교수, ▲최진명 건양대 교수, ▲김광혁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박상현·홍경순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오용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등 6명이고 김만규 공주대 교수 등 11명의 위원은 유임하여 위촉
 - 내포시대 개막과 함께 위촉된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보화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특히 전자지방정부 분야와 스마트·그린 IT·공간정보 등차세대인프라 분야, 정보화 관련 전문기관에서 IT사업에 자문을 할 책임자를 위촉함으로써 앞으로 도가 추진할 지능형 행정정보화에 큰 힘이 되어 줄 것
 - 위촉장을 수여한 후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정기회를 열어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사업,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사업 등 지난해 내포 신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한편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12년도 정보화 추진실적 및 '13년도 충남도가 추진할 지능형 행정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벌였으며, 도출된 전문가 의견은 보완하여 충남도가 추진할 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 할 예정

['13.2.19] 충남발전연구원, 공주시 관내 '사랑의 연탄 배달'

- 충남발전연구원은 19일 공주시 정안면 소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연탄 3천장 전달
 - '공주연탄은행'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는 충남연 원우회 설립 6주년 기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 충남발전은 농촌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지원 등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실천 중

['13.2.15] 2013년 충남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 단체 공모

- 충남도는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15일까지 신청 접수
 -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본 사업에 선정 될 경우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한도 내에 사업비와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
 - 신청은 2월 15일까지 단체가 위치한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면 되고, 시·군과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현지조사, 시·군, 도 마을기업육성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 도 관계자는 “내실 있는 마을기업의 발굴 및 성공모델화 될 수 있는 마을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도는 2월 6일 오후 2시에 충남공무원교육원 소강당에서 마을기업 육성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신청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일자리경제 정책과(041-365-2216) 또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041-858-4601~2)로 문의

['13.2.14] 충남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행

- 충남도는 올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2월부터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꾀하는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사업
 - 금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공원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이나 지역 탐방로 개설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73개 사업에 총 1,574명이(상반기 822명, 하반기 752명) 참여, 총 53억원의 사업비 투입
 -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도민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지역실정에 따라

- 150%) 이하이어야 하고, 재산이 1억3,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사업 참여자는 하루 8시간, 주 28시간 이내를 근무하며, 월 급여는 73만원 정도를 받고 4대보험에도 가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13.2.1]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찾습니다.

- 충남도는 올해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예비) 사회적기업 50개 신규 발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전시판매전·활동가대회 개최,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 구축 확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
- 그동안 충남도는 민선5기 출범 후 사회적기업 육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육성전략 및 제도마련 등 기반구축,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확산을 통한 저변확대를 통해 2012년까지 117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
- 올해도 분기별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기회 및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29일부터 제1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 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수행기관을 모집
- 특히, 금번 공모부터 서해안유류사고피해 등 지역사회내 직면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진입하려는 기업에게는 가점부여와 재정지원사업 확대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기업들을 적극 발굴
- 신청은 오는 2월 13일까지 기업 및 단체가 위치한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지역 경제과 또는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청
- 공모 신청 희망 기업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이익재분배(상법상 회사 등 필요기관에 한함) 등 4가지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추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관련 현행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공모사업 참여 전 기업대표가 사이버교육(www.socialenterprise.or.kr)을 의무적으로 수강
- 심사절차는 시·군과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 도 실무위원회 사전심사,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됨
- 2월 5일 오후 2시에는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지역의 기업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당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 일자리경제정책과(041-635-3329) 또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041-858-4601~2)로 문의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SERI경제포커스) : <http://www.seri.org>
 - 금융사의 위기극복 5大 전략-저성장, 저금리 장기화
 - 2013년 1/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 유럽 지하경제 현황과 각국 정부의 대응
 - 중국 부품 소재·장비·SW 산업이 경쟁력 및 생태계 분석
 - 부상하는 아세안 경제 재조명
 -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설비투자
 - 직원의 마음을 읽는 창, 빅데이터
- 현대경제연구원 : <http://hri.co.kr>
 -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 유로존 4분기 경제성장률 급락
 - 최근의 금융소비자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 상반기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된다
 - 청년 취업, 빈익빈 부익부 가능성 높다
 - 유로존 침체 속도 둔화
 - 한중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 한국 소재 산업의 국제 경쟁력 변화와 시사점
- LG경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 모바일 시대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넘어 오프라인 지배 꿈꾼다
 - 걸음마 댄 소셜 분석, 한계 아는 만큼 가치가 보인다
 - 협동조합모델, 제조업에도 가능할까
 - 도시화, 향후 10년 중국 경제 좌우할 동력
 - 선진국, 친특허 정책에서 한발후퇴
 - 실패에 무너지는 기업, 실패를 통해 강해지는 기업
 - PER로 본 한국의 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졌다
-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 새로운 성장기여도 추정 및 우리 경제의 성장 동인 재평가
 - 재정위기 이후 나타난 유로지역 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 정책
 - 고령화 국가의 부문별 지출여력 분석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의 주요 특징
 - 글로벌 위기 이후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동향 및 특징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총생산 (GDP) ¹⁾	억원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12,371,282
국민총소득 (GNI) ¹⁾	억원	9,768,139	10,341,154	10,697,831	11,747,530	12,405,039
1인당 GNI ¹⁾	만원	2,010	2,113	2,175	2,378	2,492
경제성장률 ²⁾	%	5.1	2.3	0.3	6.3	3.6
산업구조	—					
농림어업	%	2.9	2.7	2.8	2.6	2.7
광공업		27.5	28.1	28.0	30.5	31.4
전기가스·수도사업		2.2	1.3	1.8	2.0	2.0
건설업		7.4	7.0	6.9	6.3	5.9
서비스업 및 기타		60.0	60.8	60.4	58.5	58.1
제조업 평균가동률	%	80.3	77.6	74.4	80.9	79.9
취업자	천명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농림어업	%	7.4	7.2	7.0	6.6	6.4
광공업		17.2	16.9	16.4	17.0	16.9
건설업		7.9	7.7	7.3	7.4	7.2
서비스업 및 기타		67.6	68.3	69.3	69.1	69.5
실업률	%	3.2	3.2	3.6	3.7	3.4
경상수지		21,770	3,198	32,790	29,394	26,505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7,129	5,170	37,866	40,082	30,950
서비스수지		△11,967	△5,734	△6,641	△8,626	△4,377
소득수지		135	4,435	2,277	1,016	2,456
경상이전수지		△3,527	△674	△712	△3,079	△2,523
수출액	억달러	3,715	4,220	3,635	4,664	5,552
수입액		3,568	4,353	3,231	4,252	5,244
총저축률	%	30.8	30.5	30.2	32.1	31.7
민간비중	%	20.2	21.2	23.4	24.7	24.1
정부비중		10.6	9.3	6.8	7.4	7.6
총자본형성	십억원	277,729	277,773	240,412	278,359	—
최종소비지출	%	69.1	70.0	70.1	67.8	68.3
민간비중	%	54.4	54.7	54.1	52.6	52.9
정부비중		14.7	15.3	16.0	15.2	15.4
생산자물가상승률	%	1.4	8.6	-0.2	3.8	6.1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7	2.8	3.0	4.0

주 : 1) 당해년 가격. 2) 실질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www.bok.or.kr),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일일경제지표 (2013.2.1기준)

금리

구 분	'10말	'11말	12.12말	1.30	1.31	2.1	전일비	'12말비
콜금리(1일), %	2.49	3.27	2.75	2.75	2.75	2.76	0.01	0.01
CD(91일), %	2.80	3.55	2.89	2.84	2.84	2.84	0.00	△0.05
국고채(3년), %	3.38	3.34	2.82	2.78	2.76	2.76	0.00	△0.06
국고채(5년), %	4.08	3.46	2.97	2.90	2.89	2.90	0.01	△0.07
회사채(3년, AA-), %	4.27	4.21	3.29	3.15	3.13	3.31	0.18	0.02
외국인채권순매수(상장액원)	638,134	410,274	5,986	887	1,703	144	△1,559	-

※ '10말('10.1.1~12.31), '11말('11.1.1~12.31), '12.12말('12.12.1~12.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주가

구 분	'10말	'11말	12.12말	1.30	1.31	2.1	전일비	'12말비(%)
KOSPI지수	2,051.00	1,825.74	1,997.05	1,964.43	1,961.94	1,957.79	△0.21%	△1.97%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53,969	36,321	32,150	42,277	43,925	39,780	△5,381	-
KOSDAQ지수	510.69	500.18	496.32	502.80	503.67	503.31	△0.07%	1.41%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228,939	△95,731	3,876	△1,055	△769	△350	419	-

※ 기간중 : '10말('10.1.1~12.31), '11말('11.1.1~12.31), '12.12말('12.12.1~12.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환율

구 분	'10말	'11말	12.12말	1.30	1.31	2.1	전일비	'12말비(%)
₩/US\$	1,134.80	1,151.80	1,070.60	1,085.50	1,089.00	1,097.40	0.77	2.50
선물환(NDF, 1월물)	1,137.00	1,154.70	1,072.80	1,087.60	1,090.90	1,099.40	0.78	2.48
₩/CNY	170.43	182.29	171.80	174.49	175.03	176.26	0.69	3.15
₩/EUR	1,501.68	1,488.93	1,417.47	1,463.91	1,479.08	1,494.44	1.04	5.43
₩/¥100	1,393.59	1,481.22	1,238.26	1,193.91	1,197.62	1,190.76	△0.57	△3.84
¥/US\$	81.43	77.76	86.46	90.92	90.93	92.16	1.35	6.59
US\$/EUR	1.3233	1.2927	1.3240	1.3486	1.3582	1.3618	0.27	2.85
CNY/US\$	6.6100	6.3248	6.2304	6.2199	6.2190	6.2249	0.09	△0.09

※ '12년 평균 환율: (₩/US\$) 1,126.8원 (₩/¥100) 1,414.0원 ※ '13년 평균 환율('13.1.1~현재): (₩/US\$) 1,067.3원 (₩/¥100) 1,198.2원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10말	'11말	12.12말	1.30	1.31	2.1	전일비	'12말비
LIBOR(Dollar, 3월, %)	0.30	0.58	0.31	0.30	0.30	0.30	0.00	△0.01
T/NOTE(10년물)	3.29	1.88	1.76	1.99	1.99	1.95	0.00	0.23
DOW	11,578	12,218	13,104	13,910	13,861	14,010	△0.36%	5.77%
NIKKEI	10,229	8,455	10,395	11,114	11,139	11,191	0.47%	7.66%
SANGHAI COMP	2,808	2,199	2,269	2,379	2,385	2,419	1.41%	6.61%
외평채가산금리(bp, 2013년물)	175	165	63	59	62	60	△2	△3
CDS(5년, bp)	95	161	67	71	72	72	0	5
CRS(1년, %)	1.43	2.05	2.22	2.10	2.10	2.09	△0.01	△0.13

유가 · 곡물 · 원자재

구 분	'10말	'11말	12.12말	1.30	1.31	2.1	전일비	'12말비
DUBAI (\$/배럴)	88.80	104.89	107.81	109.62	110.80	110.46	△0.31%	2.46%
WTI 선물 (\$/배럴)	94.84	98.83	91.82	97.94	97.49	97.77	0.29%	6.48%
Brent 선물 (\$/배럴)	94.75	107.38	111.11	114.90	115.55	116.76	1.05%	5.09%
원당 (센트/파운드)	32.12	23.3	19.51	18.71	18.78	18.89	0.59%	△3.18%
밀 (센트/부셀)	794	653	778	787	780	765	△1.86%	△1.67%
대두 (센트/부셀)	1,403	1,208	1,410	1,479	1,469	1,474	0.39%	4.59%
옥수수 (센트/부셀)	629	647	698	740	741	736	△0.61%	5.41%
동 (\$/톤)	9,665	7,570	7,930	8,215	8,216	8,190	△0.32%	3.28%
알루미늄 (\$/톤)	2,468	1,992	2,072	2,086	2,111	2,092	△0.90%	0.99%

※ '12년 평균 유가: (Dubai) 109.03\$, (WTI선물) 94.18\$. ※ '13년 평균 유가('13.1.1~현재): (Dubai) 108.04\$, (WTI 선물) 94.96\$.

자료: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P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551,484	579,740	651,338	763,538	849,280
전국대비 구성비 ¹⁾	%	5.66	5.65	6.12	6.51	6.83
GRDP 성장률 ²⁾	%	7.1	6.2	5.4	12.0	4.8
1인당 GRDP	백만원	27.97	28.82	31.95	36.79	40.36
산업구조 ³⁾	—					
농림어업	%	6.7	6.3	5.7	5.1	4.6
광공업		45.9	47.0	51.0	54.7	57.6
전기가스수도업		4.4	2.5	3.4	3.8	3.7
건설업		8.7	9.3	8.1	7.5	7.1
서비스업 및 기타		34.5	34.9	31.7	28.9	26.9
15세이상인구	천명	1,547	1,564	1,588	1,613	1,643
경제활동인구	천명	1,021	996	991	1,003	1,025
취업자	천명	998	973	961	974	1,001
농림어업	%	21.9	19.5	18.8	16.8	16.3
광공업		17.0	17.4	17.1	19.0	20.4
건설업		6.6	5.7	5.8	5.6	6.4
서비스업 및 기타		54.5	57.3	58.3	58.5	57.0
실업자	천명	23	24	29	29	24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6	568	597	610	618
경제활동참가율	%	66.0	63.7	62.4	62.2	62.4
실업률	%	2.2	2.4	3.0	2.9	2.3
고용률	%	64.5	62.2	60.5	60.4	60.9
무역수지	백만달러	21,149	13,380	20,299	29,161	26,314
수출액	백만달러	47,823	42,936	39,428	54,054	59,954
수입액		26,674	29,556	19,129	24,893	33,640
소비자물가상승률	%	2.5	4.9	2.7	3.0	4.1

주 : 1) 당해년가격 2) 연쇄지수(2005=100) 3) 당해년가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www.kosis.kr),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천안시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138,471	162,116	179,708
공주시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21,492	23,473	25,823
보령시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19,690	22,149	24,708
아산시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126,325	161,532	213,087
서산시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81,233	76,993	90,522
논산시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20,403	22,735	25,239
계룡시 ¹⁾	2,726	3,058	3,195	2,947	4,368	4,319	4,058	4,482
당진시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57,866	60,282	72,559
금산군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13,945	14,297	15,606
연기군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20,241	21,095	24,822
부여군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12,809	14,201	15,052
서천군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13,512	13,633	15,088
청양군	6,033	6,183	6,346	6,412	7,155	6,703	6,646	6,737
홍성군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15,471	16,855	16,679
예산군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15,387	16,082	17,518
태안군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11,876	15,161	15,907
충청남도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579,740	651,338	763,538

주 : 1)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자료 : 시·군단위 지역내 총생산, 충청남도.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9 12	126.6	0.6	9.8	5.3	99.5	0.2
2010 01	127.3	0.5	10.2	6.0	99.6	0.1
02	128.2	0.7	10.6	6.8	99.9	0.3
03	129.0	0.6	10.4	7.4	100.1	0.2
04	129.6	0.5	9.7	7.8	100.1	0.0
05	130.2	0.5	8.9	8.2	100.2	0.0
06	131.0	0.7	8.5	8.5	100.4	0.2
07	132.0	0.8	8.3	8.8	100.7	0.3
08	132.8	0.6	7.9	8.7	100.8	0.1
09	133.3	0.4	7.3	8.2	100.7	-0.0
10	133.3	0.0	6.0	7.3	100.3	-0.5
11	133.4	0.0	4.9	6.4	99.8	-0.4
12	134.3	0.7	5.3	6.2	100.0	0.2
2011 01	136.1	1.4	7.0	6.8	100.9	0.9
02	137.0	0.6	7.2	6.7	101.1	0.2
03	137.1	0.1	6.3	6.1	100.8	-0.4
04	137.2	0.0	5.3	5.6	100.3	-0.4
05	138.0	0.6	5.6	5.7	100.5	0.1
06	139.1	0.8	6.2	6.0	100.8	0.3
07	139.5	0.3	5.8	5.8	100.7	-0.1
08	139.7	0.1	5.2	5.3	100.4	-0.3
09	140.3	0.4	5.2	5.2	100.3	-0.0
10	141.0	0.5	5.4	5.3	100.4	0.1
11	141.6	0.4	5.3	5.2	100.4	-0.0
12	142.0	0.3	4.9	5.0	100.2	-0.2
2012 01	142.5	0.4	4.7	4.9	100.1	-0.1
02	143.1	0.4	4.7	4.9	100.1	0.0
03	143.0	-0.1	3.8	4.3	99.6	-0.6
04	143.8	0.6	4.3	4.4	99.7	0.2
05	145.2	0.9	5.4	4.9	100.2	0.5
06	145.8	0.5	5.4	4.9	100.3	0.1
07	146.1	0.2	5.0	4.7	100.1	-0.2
08	145.9	-0.1	4.0	4.2	99.6	-0.4
09	146.7	0.5	4.3	4.3	99.8	0.1
10	146.5	-0.1	3.4	3.8	99.4	-0.4
11	147.1	0.4	3.5	3.8	99.4	0.0
12	147.3	0.2	3.3	3.5	99.2	-0.2

자료 : 2012년 12월 충청남도 경기종합지수,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2013.2.

시장경기동향

(기준지수=100)

구 분	업황		매출		자금사정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2009	68.0	79.1	60.5	78.0	63.6	77.6
2010	70.3	94.4	68.4	94.4	69.7	87.5
2011	65.6	94.4	63.1	94.8	67.9	91.0
2011 4/4	64.3	94.2	67.8	94.2	69.1	89.2
2012 1/4	48.2	87.2	51.8	85.1	49.8	81.9
2/4	64.7	80.3	64.9	91.1	62.9	75.1
3/4	58.6	78.5	58.7	80.5	53.2	70.9
4/4	68.0	89.9	67.9	94.8	66.7	86.8
2011 01	39.3	79.3	36.9	86.3	53.6	79.8
02	53.6	81.0	48.8	76.2	66.7	89.3
03	71.4	115.5	75.0	109.5	72.6	102.4
04	84.6	109.5	77.2	120.2	70.3	100.0
05	70.7	100.9	67.3	92.2	70.7	93.1
06	60.1	76.7	58.3	87.6	67.7	87.3
07	63.1	88.8	46.7	88.0	60.6	84.8
08	65.6	96.7	58.1	86.5	66.9	92.4
09	85.5	101.9	85.3	108.2	77.9	95.9
10	69.7	102.2	71.2	104.9	72.8	91.7
11	63.5	93.2	65.5	91.9	65.0	86.3
12	59.7	87.3	66.6	85.7	69.5	89.5
2012 01	54.2	97.8	62.9	97.7	54.4	93.1
02	43.3	61.9	43.8	51.9	46.0	60.9
03	47.0	101.8	48.7	105.7	49.1	91.7
04	67.4	84.3	64.3	97.5	56.7	78.7
05	79.6	83.3	76.4	99.8	68.5	71.5
06	47.1	73.2	54.0	76.1	63.6	75.0
07	50.4	72.0	53.3	68.1	50.7	69.2
08	52.9	64.9	46.2	64.0	46.0	57.2
09	72.4	98.5	76.5	109.4	62.9	86.2
10	76.9	102.2	72.7	107.5	71.1	94.6
11	82.7	96.4	90.3	101.7	77.0	91.3
12	44.5	71.0	40.6	75.1	51.9	74.4
2013 01	41.9	72.0	38.9	66.6	49.8	76.4
02	-	104.1	-	110.4	-	96.4

자료 : 월간시장경기동향조사,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 경상판매액)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9	1,000,673	8.0	-	716,401	8.5	-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11	1,450,812	32.5	-	918,307	15.2	-
2011 4/4	378,808	29.2	3.3	223,078	14.6	-9.6
2012 1/4	378,000	6.5	-0.2	247,840	9.8	11.1
2/4	363,964	3.9	-3.7	230,878	3.7	-6.8
3/4	387,720	5.8	6.5	269,446	9.1	16.7
4/4	410,810	8.4	6.0	-	-	-
2010 12	124,757	33.7	53.5	71,890	11.9	17.5
2011 01	133,939	50.7	7.4	85,523	35.6	19.0
02	108,755	16.3	-18.8	69,975	-0.7	-18.2
03	112,386	28.3	3.3	70,159	12.7	0.3
04	111,521	37.4	-0.8	69,653	19.4	-0.7
05	121,238	33.1	8.7	78,018	17.3	12.0
06	117,625	43.1	-3.0	75,023	18.6	-3.8
07	124,762	36.4	6.1	84,338	17.1	12.4
08	114,166	30.9	-8.5	79,742	14.2	-5.4
09	127,612	29.2	11.8	82,798	8.1	3.8
10	124,339	42.8	-2.6	72,739	18.2	-12.1
11	114,856	41.3	-7.6	68,295	11.6	-6.1
12	139,613	11.9	21.6	82,044	14.1	20.1
2012 01	136,752	2.1	-2.0	90,781	6.1	10.6
02	116,618	7.2	-14.7	76,802	9.8	-15.4
03	124,630	10.9	6.9	80,257	14.4	4.5
04	119,552	7.2	-4.1	75,968	9.1	-5.3
05	127,364	5.1	6.5	81,100	4.0	6.8
06	117,048	-0.5	8.1	73,810	-1.6	-9.0
07	128,184	2.7	9.5	87,973	4.3	19.2
08	123,597	8.3	-3.6	88,229	10.6	0.3
09	135,939	6.5	10.0	93,244	12.6	5.7
10	127,452	3.3	-6.2	-	-	-
11	133,475	16.2	4.7	-	-	-
12	149,883	7.4	12.3	-	-	-

자료 : 대형소매점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10 01	799,644	34,175	2,726	556,506	50,627	189,979	2,532
02	802,175	34,944	2,531	558,906	50,573	190,154	2,542
03	805,400	36,195	3,225	561,742	50,576	190,533	2,549
04	809,436	37,547	4,036	565,070	50,575	191,237	2,554
05	812,325	37,360	2,889	567,579	50,577	191,606	2,563
06	815,377	36,510	3,052	570,488	50,479	191,838	2,572
07	819,864	38,223	4,487	574,616	50,498	192,165	2,585
08	822,465	39,188	2,601	576,924	50,478	192,472	2,591
09	826,121	39,613	3,656	580,147	50,490	192,878	2,606
10	829,848	39,974	3,727	583,435	50,494	193,296	2,623
11	833,491	40,086	3,643	586,724	50,473	193,666	2,628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03	845,308	39,908	3,257	597,321	50,416	194,869	2,702
04	848,873	39,437	3,565	600,551	50,292	195,308	2,722
05	853,037	40,712	4,164	604,388	50,310	195,599	2,740
06	855,987	40,610	2,950	607,137	50,243	195,870	2,737
07	859,237	39,373	3,250	610,184	50,211	196,091	2,751
08	860,844	38,379	1,607	611,828	50,087	196,139	2,790
09	863,512	37,391	2,668	614,423	49,980	196,305	2,804
10	866,051	36,203	2,539	616,701	49,905	196,607	2,838
11	868,047	34,556	1,996	618,572	49,885	196,748	2,842
12	868,688	34,297	641	619,438	49,639	196,747	2,864
2012 01	874,019	34,506	5,331	624,415	49,661	197,073	2,870
02	877,054	35,003	3,035	627,119	49,576	197,463	2,896
03	879,550	34,242	2,496	629,387	49,500	197,761	2,902
04	881,916	33,043	2,366	631,481	49,485	198,031	2,919
05	884,348	31,311	2,432	633,644	49,474	198,298	2,932
06	883,775	27,788	-573	635,705	49,457	198,684	2,929
07	849,209	-10,028	-34,566	609,179	47,178	190,024	2,828
08	848,303	-12,541	-906	608,524	47,155	189,786	2,838
09	850,312	-13,200	2,009	610,556	46,946	189,962	2,848
10	852,628	-13,423	2,316	612,698	46,930	190,135	2,865
11	855,322	-12,725	2,694	615,090	46,900	190,447	2,885
12	855,751	-12,937	429	615,770	46,751	190,331	2,899
2013 01	859,321	-14,698	3,570	618,881	46,739	190,790	2,911

자료 : 시군별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9	97.1	2.7	96.7	2.0	81.6	5.7	97.2	2.8	96.6	2.3	97.1	2.7
2010	100.0	3.0	100.0	3.4	100.0	22.6	100.0	2.9	100.0	3.5	100.0	3.0
2011	104.1	4.1	104.6	4.6	106.1	6.1	104.0	4.0	104.2	4.2	104.4	4.4
2011 4/4	104.8	3.9	105.2	4.1	100.8	-8.3	104.7	3.8	104.9	4.0	105.3	4.3
2012 1/4	105.9	2.8	106.3	2.6	110.7	0.4	105.9	2.9	105.6	2.4	106.3	3.0
2/4	106.6	2.8	107.0	2.8	113.5	11.5	106.7	3.0	105.9	1.9	106.8	2.7
3/4	106.8	1.8	106.8	1.3	115.2	3.2	106.8	1.9	105.9	1.0	106.9	1.6
4/4	107.0	2.1	106.8	1.5	113.4	12.5	107.0	2.2	106.2	1.2	107.0	1.6
2011 01	102.2	3.5	102.6	4.3	109.4	23.0	102.1	3.4	102.2	3.7	102.3	3.6
02	103.2	4.2	103.9	5.2	110.9	20.7	103.1	4.1	103.2	4.3	103.4	4.4
03	103.5	4.3	104.2	5.1	110.6	16.2	103.4	4.3	103.8	4.4	103.9	4.5
04	103.5	3.9	104.2	4.4	106.2	7.8	103.5	3.8	103.6	3.9	103.8	4.2
05	103.7	3.9	103.9	3.9	100.2	3.0	103.6	3.7	103.9	4.1	104.0	4.4
06	103.9	4.3	104.2	4.6	99.1	6.5	103.8	4.1	104.1	4.4	104.3	4.8
07	104.4	4.5	104.6	4.8	105.8	12.1	104.3	4.3	104.5	4.6	104.8	4.9
08	105.2	4.9	105.8	5.5	116.7	15.1	105.1	4.8	105.1	4.8	105.4	5.0
09	105.0	4.1	105.7	4.4	112.3	-3.5	104.9	3.9	105.0	4.0	105.3	4.5
10	104.7	3.6	105.2	3.6	103.5	-13.1	104.6	3.5	104.7	3.6	105.2	4.0
11	104.7	4.1	105.1	4.6	99.9	-6.8	104.6	4.0	104.9	4.3	105.2	4.5
12	105.0	3.9	105.4	4.2	99.0	-7.4	104.8	3.7	105.1	4.1	105.5	4.4
2012 01	105.5	3.2	105.9	3.2	106	-3.4	105.5	3.3	105.4	3.1	106.0	3.6
02	106.0	2.7	106.4	2.4	111.1	0.2	105.9	2.7	105.8	2.5	106.4	2.9
03	106.2	2.6	106.7	2.4	115.1	4.1	106.2	2.7	105.7	1.8	106.6	2.6
04	106.4	2.8	106.9	2.6	113.5	6.9	106.5	2.9	105.7	2.0	106.7	2.8
05	106.8	3.0	107.2	3.2	116.5	16.3	106.8	3.1	106.2	2.2	106.9	2.8
06	106.7	2.7	107.0	2.7	110.4	11.4	106.8	2.9	105.9	1.7	106.7	2.3
07	106.4	1.9	106.2	1.5	109.1	3.1	106.4	2.0	105.6	1.1	106.5	1.6
08	106.6	1.3	106.5	0.7	113.7	-2.6	106.7	1.5	105.7	0.6	106.7	1.2
09	107.4	2.3	107.7	1.9	122.9	9.4	107.4	2.4	106.5	1.4	107.5	2.1
10	107.2	2.4	107.2	1.9	118.8	14.8	107.3	2.6	106.4	1.6	107.2	1.9
11	106.8	2.0	106.5	1.3	109.5	9.6	106.8	2.1	106.0	1.0	106.9	1.6
12	106.9	1.8	106.6	1.1	112.0	13.1	107.0	2.1	106.1	1.0	107.0	1.4
2013 01	107.5	1.9	107.2	1.2	117.3	10.7	107.6	2.0	106.6	1.1	107.6	1.5

자료 : 충청지역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11	59,954	10.9	-	33,640	35.1	-	26,314
2011 4/4	15,834	10.9	2.5	8,497	29.1	-4.7	7,337
2012 1/4	14,526	5.1	-8.3	8,687	13.9	2.2	5,839
2/4	14,810	-0.2	2.0	8,851	2.9	1.9	5,959
3/4	15,749	1.9	6.3	7,868	-11.8	-11.1	7,881
4/4	17,010	7.4	8.0	8,097	-4.7	2.9	8,913
2011 01	4,733	29.3	2.5	2,556	40.9	6.3	2,177
02	4,220	15.6	-10.8	2,234	18.2	-12.6	1,986
03	4,872	10.7	15.5	2,835	38.8	26.9	2,037
04	4,868	11.7	-0.1	2,688	40.2	-5.2	2,180
05	5,022	12.0	3.2	2,781	44.3	3.5	2,241
06	4,957	7.9	-1.3	3,131	32.5	12.6	1,826
07	5,089	3.9	2.7	2,826	36.9	-9.7	2,263
08	4,925	-0.2	-3.2	2,867	38.4	1.5	2,058
09	5,435	13.2	10.4	3,225	44.0	12.5	2,210
10	5,510	10.3	1.4	2,834	39.6	-12.1	2,676
11	4,996	7.2	-9.3	2,741	27.7	-3.3	2,255
12	5,328	15.4	6.6	2,922	21.6	6.6	2,406
2012 01	4,563	-3.6	-14.4	2,781	8.8	-4.8	1,782
02	4,828	14.4	5.8	3,102	38.8	11.5	1,726
03	5,135	5.4	6.4	2,804	-1.1	-9.6	2,331
04	4,741	-2.6	-7.7	2,972	10.6	6.0	1,769
05	5,061	0.8	6.7	3,116	12.1	4.8	1,945
06	5,008	1.0	-1.0	2,763	-11.8	-11.3	2,245
07	5,134	0.9	2.5	2,398	-15.2	-13.2	2,736
08	5,049	2.5	-1.7	2,476	-13.7	3.3	2,573
09	5,566	2.4	10.2	2,994	-7.2	20.9	2,572
10	5,918	7.4	6.3	2,396	-15.5	-20.0	3,522
11	5,742	14.9	-3.0	2,875	4.9	20.0	2,867
12	5,350	0.4	-6.8	2,826	-3.3	-1.7	2,524
2013 01	5,308	16.3	-0.8	2,867	3.1	1.5	2,441

자료 : 지역별수출입,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고용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천명, %, %p)

구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09	991	-0.5	585	406	62.4	-1.3	74.6	50.5
2010	1,003	1.2	591	412	62.2	-0.2	74.1	50.5
2011	1,025	2.2	609	416	62.4	0.2	75.0	50.1
2011 4/4	1,031	2.3	612	419	62.2	0.1	74.6	50.0
2012 1/4	991	2.9	595	396	59.0	-0.1	71.5	46.8
2/4	1,110	4.6	653	457	65.1	0.3	77.0	53.3
3/4	1,120	7.3	664	456	64.7	1.3	76.9	52.5
4/4	1,100	6.7	652	448	62.8	0.6	74.6	51.0
2011 01	923	-0.9	558	365	56.7	-1.4	69.4	44.3
02	955	2.0	579	376	58.6	0.3	71.8	45.6
03	1,012	5.8	608	405	62.0	2.4	75.3	49.0
04	1,042	2.7	621	421	63.7	0.6	76.9	50.9
05	1,064	3.2	628	436	65.0	0.9	77.6	52.7
06	1,076	3.7	629	447	65.6	1.3	77.6	53.9
07	1,051	1.4	619	432	63.9	-0.3	76.2	52.0
08	1,043	1.1	619	424	63.3	-0.5	75.9	50.9
09	1,038	0.0	611	427	62.9	-1.3	74.9	51.2
10	1,066	3.1	624	442	64.5	0.7	76.3	52.8
11	1,041	2.0	615	425	62.8	-0.1	75.1	50.8
12	985	1.8	596	389	59.3	-0.2	72.4	46.4
2012 01	959	3.8	572	386	57.4	0.7	69.1	45.8
02	975	2.1	592	383	58.0	-0.6	71.1	45.2
03	1,041	2.8	622	419	61.7	-0.3	74.2	49.3
04	1,097	5.3	648	448	64.6	0.9	76.9	52.5
05	1,113	4.6	654	459	65.3	0.3	77.1	53.6
06	1,119	4.0	657	463	65.3	-0.3	76.9	53.8
07	1,129	7.4	664	465	65.5	1.6	77.2	53.8
08	1,112	6.6	664	448	64.2	0.9	76.9	51.5
09	1,119	7.7	663	455	64.4	1.5	76.5	52.3
10	1,128	5.8	664	464	64.7	0.2	76.3	53.1
11	1,117	7.4	656	461	63.8	1.0	75.2	52.5
12	1,054	7.0	636	418	59.9	0.6	72.4	47.5
2013 01	1,030	7.4	624	405	58.2	0.8	70.7	45.8

자료 :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취업자		청장년층					고령층		
	합계	전년 동월기비	15-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4세	55- 59세	60- 64세	65세 이상
2009	961	-1.2	7	131	212	253	112	74	61	112
2010	974	1.3	9	140	215	252	115	84	58	102
2011	1001	2.8	10	139	215	257	119	89	63	109
2011 4/4	1,009	2.8	8	136	219	263	120	93	63	107
2012 1/4	961	2.8	10	140	213	251	120	89	56	83
2/4	1,084	4.3	12	149	222	266	126	99	64	146
3/4	1,097	7.5	13	154	222	270	126	99	63	150
4/4	1,079	7.0	10	160	221	268	129	99	61	132
2011 01	899	0.9	11	143	212	242	107	80	47	56
02	924	3.1	12	142	213	243	110	79	56	68
03	982	5.3	13	137	213	249	116	85	63	107
04	1,017	2.8	10	140	213	257	118	91	67	122
05	1,046	3.9	8	143	216	261	124	91	70	135
06	1,057	4.1	9	142	220	264	127	91	69	136
07	1,027	2.0	12	141	217	256	120	90	66	124
08	1,019	1.3	13	134	209	261	122	92	67	122
09	1,016	1.0	7	133	216	261	119	93	68	119
10	1,038	3.3	7	135	218	267	123	93	69	128
11	1,023	2.8	8	137	222	264	122	92	64	115
12	965	2.4	10	136	216	259	116	92	56	80
2012 01	930	3.5	12	133	210	251	120	85	51	68
02	938	1.5	10	140	213	247	116	85	56	72
03	1,015	3.4	8	147	216	257	124	95	60	109
04	1,069	5.2	14	145	222	263	125	100	62	139
05	1,094	4.6	12	150	223	268	126	99	66	150
06	1,090	3.1	11	151	221	267	126	98	65	150
07	1,104	7.5	15	155	221	272	126	99	64	152
08	1,088	6.8	14	151	223	267	125	97	62	149
09	1,099	8.2	11	156	221	270	128	100	64	150
10	1,110	6.9	11	158	219	273	131	103	65	151
11	1,097	7.3	9	161	222	266	129	101	62	148
12	1,031	6.9	11	161	221	264	126	95	57	97
2013 01	1,001	7.6	12	158	216	261	125	94	53	82

자료 : 행정구역별 연령별취업자,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합계	전년 동월(기)비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운수 통신금융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2009	961	-1.2	181	164	93	56	188	179
2010	974	1.3	164	185	99	55	177	296
2011	1,001	2.8	163	204	97	64	177	297
2011 4/4	1,009	2.8	152	215	93	71	185	293
2012 1/4	961	2.8	99	208	98	65	191	300
2/4	1,084	4.3	183	206	98	70	197	330
3/4	1,097	7.5	190	214	91	69	205	327
4/4	1,079	7.0	163	223	88	73	203	329
2011 01	899	0.9	90	196	103	52	170	289
02	924	3.1	108	197	102	56	172	289
03	982	5.3	159	196	103	60	172	293
04	1,017	2.8	182	201	98	62	172	301
05	1,046	3.9	206	201	99	63	173	305
06	1,057	4.1	205	200	99	67	179	308
07	1,027	2.0	185	201	94	63	180	305
08	1,019	1.3	181	205	92	66	180	295
09	1,016	1.0	180	207	94	67	171	297
10	1,038	3.3	189	213	92	70	180	295
11	1,023	2.8	162	217	93	70	187	294
12	965	2.4	105	214	95	72	189	290
2012 01	930	3.5	80	211	97	67	190	287
02	938	1.5	82	208	98	63	191	296
03	1,015	3.4	136	205	98	67	191	319
04	1,069	5.2	176	203	96	70	192	332
05	1,094	4.6	188	209	99	70	199	330
06	1,090	3.1	186	205	98	71	202	329
07	1,104	7.5	188	212	94	67	213	331
08	1,088	6.6	188	212	91	70	209	319
09	1,099	8.2	194	219	88	72	195	332
10	1,110	6.9	189	217	90	75	207	331
11	1,097	7.3	185	225	87	70	204	327
12	1,031	6.9	116	228	86	73	199	330
2013 01	1,001	7.6	94	230	87	68	205	317

자료 : 행정구역별 산업별취업자, 통계청.

실업률, 실업자

(단위 : 천명, %, %p)

구분	실업률				실업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합계	전년 동월(기)비	남자	여자
2009	3.0	0.6	3.5	2.3	29	25.1	20	9
2010	2.9	-0.1	3.1	2.5	29	-2.4	18	10
2011	2.3	-0.6	2.4	2.2	24	-17.8	15	9
2011 4/4	2.1	-0.5	2.5	1.6	22	-16.4	15	7
2012 1/4	3.0	0.0	3.0	3.1	30	5.6	18	12
2/4	2.3	0.4	2.1	2.5	25	22.8	14	12
3/4	2.0	-0.2	2.0	2.0	23	-3.4	14	9
4/4	1.9	-0.2	1.8	2.0	20	-6.8	12	9
2011 01	2.6	-1.8	2.6	2.6	24	-41.3	15	9
02	3.3	-1.0	2.4	4.6	31	-21.8	14	17
03	3.0	0.5	2.8	3.2	30	24.5	17	13
04	2.4	-0.1	2.4	2.4	25	-0.8	15	10
05	1.7	-0.8	1.7	1.7	18	-28.1	11	7
06	1.7	-0.4	1.6	1.8	19	-15.5	10	8
07	2.3	-0.6	2.5	1.9	24	-18.9	16	8
08	2.3	-0.1	2.6	1.8	24	-6.0	16	8
09	2.2	-1.0	2.3	2.0	22	-31.9	14	8
10	2.6	-0.1	3.4	1.4	28	-1.8	22	6
11	1.7	-0.7	1.7	1.7	17	-30.5	10	7
12	2.1	-0.5	2.4	1.6	21	-19.5	14	6
2012 01	2.9	0.3	3.1	2.6	28	16.5	18	10
02	3.8	0.5	4.0	3.5	37	17.6	23	13
03	2.5	-0.5	2.0	3.1	26	-15.0	13	13
04	2.5	0.1	2.3	2.7	27	8.3	15	12
05	1.8	0.1	1.5	2.2	20	8.8	10	10
06	2.6	0.9	2.5	2.7	29	56.2	17	12
07	2.2	-0.1	2.2	2.1	25	3.3	15	10
08	2.1	-0.2	2.2	2.0	24	-0.4	15	9
09	1.7	-0.5	1.6	1.8	19	-14.3	11	8
10	1.6	-1.0	1.4	1.9	18	-33.9	10	9
11	1.8	0.1	1.7	1.9	20	15.0	11	9
12	2.2	0.1	2.2	2.2	23	11.7	14	9
2013 01	2.8	-0.1	2.6	3.2	29	1.8	16	13

자료 : 행정구역별 산업별취업자, 통계청.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10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09 12	138,491	265,093	403,584	220,375	146,671	367,046
2010 01	136,656	265,391	402,047	221,293	145,453	366,746
02	143,744	265,790	409,534	221,549	145,823	367,372
03	139,853	268,910	408,763	223,456	146,381	369,837
04	143,809	270,034	413,843	224,353	147,201	371,554
05	145,550	271,105	416,655	224,457	147,920	372,377
06	144,072	274,403	418,475	223,655	148,605	372,260
07	143,542	274,235	417,777	224,489	149,021	373,510
08	145,929	273,364	419,293	225,242	150,623	375,865
09	146,935	275,753	422,688	226,105	151,381	377,486
10	148,884	278,370	427,254	228,808	152,127	380,935
11	148,895	280,774	429,669	229,868	152,573	382,441
12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01	149,945	285,728	435,673	228,042	153,447	381,489
02	152,336	283,236	435,572	227,905	153,640	381,545
03	153,838	288,193	442,031	228,882	153,587	382,469
04	154,761	287,199	441,960	229,865	154,356	384,221
05	158,104	287,429	445,533	230,721	155,414	386,135
06	156,866	289,586	446,452	232,444	156,256	388,700
07	157,311	289,258	446,569	233,679	156,898	390,577
08	161,351	289,776	451,127	234,883	158,834	393,717
09	161,652	290,290	451,942	235,985	159,761	395,746
10	162,668	291,155	453,823	241,851	161,415	403,266
11	164,574	294,210	458,784	243,255	162,963	406,218
12	171,209	296,369	467,578	242,580	165,180	407,760
2012 01	168,927	296,961	465,888	245,495	164,497	409,992
02	170,977	296,845	467,822	246,535	164,433	410,968
03	177,719	299,136	476,855	247,713	164,775	412,488
04	171,814	300,045	476,855	250,943	165,888	416,831
05	175,074	301,932	477,006	252,995	166,482	419,477
06	177,213	306,227	483,440	253,422	167,002	420,424
07	168,987	306,077	475,064	253,686	168,036	421,722
08	173,207	305,620	478,827	256,291	169,522	425,813
09	167,636	290,970	458,606	245,719	156,259	401,978
10	169,646	293,034	462,680	249,763	156,316	406,079
11	173,265	293,094	467,169	248,952	155,717	404,669
12	176,102	297,849	473,951	247,034	157,286	404,320

자료 : 금융기관여수신동향, 한국은행대전총남본부.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10	0.17	0.20	0.33	0.21	0.05	0.05
2011	0.29	0.42	0.24	0.14	0.64	0.00
2011 4/4	0.40	0.67	0.09	0.34	0.91	0.00
2012 1/4	0.15	0.26	0.02	0.20	0.00	0.01
2/4	0.38	0.23	0.00	0.00	0.26	0.00
3/4	0.24	0.13	0.22	0.03	1.05	0.02
4/4	0.73	0.18	0.10	0.01	0.46	0.00
2011 01	0.20	0.16	0.73	0.14	0.11	0.00
02	0.17	0.09	0.92	0.08	0.00	0.01
03	0.87	1.39	0.43	0.05	0.36	0.00
04	0.10	0.17	0.10	0.00	0.00	0.00
05	0.12	0.21	0.04	0.06	0.11	0.00
06	0.12	0.25	0.02	0.00	0.00	0.00
07	0.19	0.34	0.00	0.22	0.00	0.00
08	0.18	0.27	0.06	0.15	0.65	0.02
09	0.28	0.14	0.31	0.00	3.67	0.01
10	0.39	0.61	0.06	0.13	1.93	0.00
11	0.74	1.33	0.18	0.41	0.60	0.00
12	0.08	0.07	0.04	0.48	0.21	0.00
2012 01	0.18	0.21	0.00	0.48	0.00	0.00
02	0.15	0.23	0.00	0.05	0.00	0.02
03	0.13	0.34	0.05	0.00	0.00	0.00
04	0.20	0.20	0.00	0.00	0.14	0.00
05	0.57	0.27	0.00	0.00	0.29	0.00
06	0.37	0.23	0.00	0.01	0.34	0.00
07	0.21	0.09	0.54	0.07	1.79	0.01
08	0.19	0.10	0.11	0.02	0.16	0.01
09	0.32	0.19	0.00	0.00	1.20	0.03
10	0.25	0.32	0.10	0.01	0.31	0.00
11	0.75	1.83	0.00	0.01	0.22	0.00
12	1.18	1.39	0.19	0.00	0.86	0.00
2013 01	0.97	2.18	1.09	0.00	1.06	0.02

자료 : 대전충남지역어음부도동향, 한국은행대전충남본부.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건축허가(㎡)		건축착공(㎡)		토지거래(천㎡)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9	7,203,977	-15.6	5,302,140	-7.1	270,249	35.1	189,970	-0.1
2010	6,636,749	-7.9	6,347,763	19.7	225,210	-16.7	141,946	-25.3
2011	9,980,356	50.4	8,895,818	40.1	192,976	-14.3	88,210	-37.9
2011 4/4	3,644,017	115.2	3,879,427	125.3	49,723	-32.4	20,765	-28.7
2012 1/4	2,438,824	70.8	2,355,123	79.0	45,709	2.7	20,407	-19.4
2/4	2,593,520	30.5	2,561,628	23.1	46,458	-20.0	18,401	-17.5
3/4	2,127,652	-27.1	1,540,403	-5.0	31,807	-24.2	18,187	-8.3
4/4	2,634,663	-27.7	1,521,927	-60.8	43,915	-11.7	-	-
2011 01	414,632	3.7	255,721	-2.1	14,265	-3.5	8,750	-37.3
02	403,350	-12.7	358,003	-12.7	12,164	-28.1	8,477	-35.7
03	610,148	13.4	700,517	-0.2	18,073	-11.3	8,082	-37.4
04	593,974	-6.9	724,923	33.7	20,501	-11.3	7,620	-41.3
05	723,947	22.4	700,162	14.9	18,041	11.1	7,459	-40.9
06	669,908	-22.7	655,836	-12.8	19,548	2.6	7,229	-42.2
07	522,989	-9.9	427,285	-7.4	15,056	-10.2	6,903	-43.5
08	1,504,930	208.9	456,491	5.6	13,713	-7.3	6,546	-43.5
09	892,461	135.0	737,453	87.6	11,892	20.2	6,379	-41.2
10	1,518,020	245.2	1,290,749	177.7	11,696	-38.9	5,903	-42.6
11	1,212,422	49.1	1,827,431	174.3	15,292	-29.3	7,391	-24.8
12	913,575	90.2	761,247	28.8	22,735	-30.0	7,471	-17.2
2012 01	558,630	34.7	507,442	98.4	12,571	-12.3	7,159	-18.2
02	714,587	77.2	1,023,484	185.9	14,206	18.9	6,746	-20.4
03	1,165,607	91.0	824,197	17.7	18,932	14.7	6,502	19.5
04	816,591	37.5	1,083,638	49.5	14,986	-15.7	6,180	-18.9
05	827,663	14.3	595,332	-15.0	13,931	-22.8	6,065	-18.7
06	949,266	41.7	882,658	34.6	17,541	-8.2	6,156	-14.8
07	528,696	1.1	475,662	11.3	12,085	-36.8	6,035	-12.6
08	878,978	-41.6	624,679	36.8	10,470	-21.4	5,965	-8.9
09	719,978	-19.3	440,062	-40.3	9,252	-18.9	6,187	-3.0
10	482,405	-68.2	437,787	-66.1	13,496	1.3	4,148	-29.7
11	659,328	-45.6	647,657	-64.6	15,317	8.5	3,068	-58.5
12	1,492,930	63.4	436,483	-42.7	15,102	-23.5	2,942	-60.6
2013 01	462,034	-17.3	82,466	-83.7	14,348	14.6	-	-

자료 :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미분양주택현황, 국토해양부 / 토지거래현황,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2011.6=100.0)

구분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10 01	96.3	0.3	0.0	93.4	100.0	98.3	90.6	0.8	0.1	87.3	93.2	96.3
02	96.4	0.6	0.1	93.6	100.0	98.3	90.8	1.4	0.2	87.6	93.2	96.3
03	96.6	0.9	0.1	93.8	100.0	98.3	91.2	2.0	0.5	88.1	93.8	96.4
04	96.4	0.8	-0.1	93.9	99.5	98.7	91.7	2.8	0.5	88.3	94.6	96.6
05	96.5	1.0	0.0	93.9	99.5	99.0	92.5	3.6	0.9	88.7	95.9	97.2
06	96.5	1.1	0.0	94.0	99.5	99.2	92.5	3.7	0.0	89.1	95.5	96.9
07	96.5	1.1	0.0	94.0	99.5	99.2	92.6	3.6	0.1	89.6	95.5	96.9
08	96.3	1.0	-0.2	94.1	98.9	99.2	92.8	3.7	0.2	90.1	95.5	97.0
09	96.4	0.7	0.0	94.2	98.9	99.4	93.6	4.1	0.9	90.6	97.0	97.6
10	96.4	0.3	0.0	94.3	98.9	99.4	94.4	4.6	0.8	91.1	98.2	98.6
11	96.6	0.3	0.2	94.6	98.9	100.0	94.7	4.7	0.4	92.0	97.9	99.1
12	96.7	0.4	0.1	94.8	98.9	100.0	95.1	5.1	0.4	92.7	97.9	99.1
2011 01	96.8	0.5	0.1	95.0	98.9	100.0	95.5	5.4	0.4	93.4	98.0	99.1
02	97.1	0.7	0.3	95.5	98.9	100.0	96.2	5.9	0.7	94.3	98.4	99.2
03	97.8	1.3	0.8	96.4	99.6	100.2	97.3	6.6	1.2	95.8	99.1	99.5
04	98.8	2.5	1.0	97.8	100.1	100.3	98.7	7.6	1.4	97.7	100.1	99.8
05	99.5	3.2	0.7	99.1	100.1	100.5	99.5	7.6	0.8	99.1	100.1	99.9
06	100.0	3.6	0.5	100.0	100.0	100.0	100.0	8.1	0.5	100.0	100.0	100.0
07	100.7	4.4	0.7	100.9	100.5	100.2	101.0	9.1	1.0	101.0	101.0	100.4
08	101.6	5.5	0.8	102.2	100.9	100.2	102.3	10.3	1.3	102.9	101.5	100.5
09	102.5	6.4	0.9	103.4	101.3	101.4	103.5	10.6	1.2	104.5	102.1	102.7
10	103.4	7.2	0.9	104.8	101.3	101.7	104.6	10.9	1.1	106.3	102.1	102.7
11	104.4	8.1	1.0	106.5	101.3	101.7	106.2	12.1	1.5	108.9	102.1	102.7
12	104.8	8.4	0.4	107.2	101.3	101.7	106.8	12.3	0.6	109.9	102.1	102.7
2012 01	105.3	8.8	0.5	108.0	101.1	101.7	107.5	12.7	0.6	111.0	102.2	102.7
02	105.7	8.9	0.4	108.6	101.1	101.9	108.1	12.5	0.6	111.9	102.2	102.7
03	106.4	8.8	0.6	109.6	101.2	102.2	109.0	12.0	0.8	113.1	102.2	103.3
04	107.5	8.8	1.0	110.3	101.2	102.5	110.3	11.8	1.2	115.2	102.2	103.6
05	108.0	8.5	0.5	112.3	101.1	102.7	111.0	11.5	0.6	116.3	102.1	103.9
06	108.6	8.6	0.6	112.8	101.1	103.6	111.5	11.5	0.5	116.9	102.4	104.6
07	109.3	8.5	0.7	113.8	101.2	104.0	112.6	11.5	1.0	118.3	102.7	105.8
08	109.7	8.0	0.4	114.3	101.3	104.8	113.2	10.7	0.5	118.9	103.1	107.0
09	110.3	7.6	0.5	115.1	101.4	105.6	114.1	10.2	0.8	120.1	103.2	107.7
10	110.8	7.2	0.5	115.2	101.3	106.2	115.2	10.1	0.9	121.9	103.2	108.6
11	111.6	6.8	0.7	117.0	101.4	106.7	116.9	10.1	1.6	124.6	103.2	109.1
12	111.9	6.8	0.3	117.6	101.2	107.2	117.8	10.3	0.7	126.1	103.0	109.6
2013 01	112.1	6.5	0.2	118.0	101.2	107.6	118.8	10.5	0.8	127.3	103.5	110.0

자료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2013 중국 [1차] 무역사절단 참가 희망업체 모집

- 기 간 : 2013. 5. 20(월) ~ 5. 24(금) / 4박 5일간
- 신청기간 : 2013. 2. 14(목) ~ 2. 25(월) / 12일간
- 신청자격 : 도내 본사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제조업체
- 운영지역 : 중국 2개 지역(상하이, 우시)
- 참가품목 : 소비재 특화(중고급 소비재, 환경·건축·전자제품 등)
- 모집규모 : 10개 업체 내외
- 의무사항 : 무역사절단 종료 후, 향후 1년간 수출상담 진행상황을 도 및 충남경제진흥원에 통보해야 함
- 지원내용

충청남도 지원	참가기업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사절단 운영 공통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인건)비, 시장조사비, 자료비 - 바이어 발굴 용역 소요경비 - 상담장 통역비, 상담시설 임차비 · 현지 국내교통비(버스 등) 또는 임차료 · 업체당 참가자 1인 왕복 항공료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지원사항 이외 개별업체 소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자 보험 및 여행사 수수료 등 - 항공료(60%) - 숙박비 - 체재비

- 참가업체 선정방법
 - 도 상하이사무소 관할지역 주요 바이어 반응, 시장 진출 가능성, 신청업체 현황 등을 종합하여 심사 선정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붙임2), 품목설명서(붙임3), 참가 각서(붙임4), 최근 6개월 내 관 세청 발급 수출신고필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 유망 중소기업 인증, 국내·외 특허·인증, 도지사 수상내역 증명자료, 여성·장애인기업 인증 등 입증 자료는 해당기업만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소 속	담당부서(담당자)	연 락 처
1	충 청 남 도 국 제 통 상 과	통상지원담당(주무관 권민식) kinesis@korea.kr	사무실 : 041-635-3361 팩 스 : 041-635-3041
		(350-831)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국제통상과	
2	충 청 남 도 경 제 진 흥 원	마케팅지원부(대리 조광옥) jkocepa@yahoo.co.kr	사무실 : 041-539-4531 팩 스 : 041-539-4509
		(336-813)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041-589-0633)으로 문의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1. 7월호

SNS의 성장 잠재력과 모바일 환경에서의 역할
KT경제경영연구소 송민정
충청광역경제권 협력의 필요성 및 대안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1. 8월호

충남 녹색성장 실태와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1. 9월호

지속가능경영의 이해와 효과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충남의 지식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10월호

충청광역경제권 지역산업의 현황 및 산업구조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인삼엑스포 이후를 생각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하광학

2011. 11월호

충남 사업체고용동향조사 분석 및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 백운성 · 김양중 · 임형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1. 12월호

2012년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부동산연구센터 조수희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1월호

2012년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임병철

2012. 2월호

2012년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황정현
2011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2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2. 3월호

경기종합지수의 개념과 지역경기종합지수의 필요성
전북발전연구원 최성환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제정 추진에 관한 일고찰
충남발전연구원 이민정

2012. 4월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체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신재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충남지역 에너지소비구조 특성
충남발전연구원 이종윤

2012. 5월호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자치단체의 역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

충남지역의 소득불평등 측정 및 추이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임병철

2012. 6월호

유로존 재정위기 항방과 충남경제

포스코경영연구소 김영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환경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2. 7월호

주택시장 변동요인과 충남 주택시장 영향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노동행정 통계로 본 충남지역 노동시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곽선아

2012. 8월호

충남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효율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2012. 9월호

충청남도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오용준

충남의 기후변화의 영향과 부문별 피해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2012. 10월호

국가통계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통계지리정보

충남발전연구원 윤정미

충남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성과

충남발전연구원 홍성호

2012. 11월호

최근 도시재생 및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정책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새정부의 지방과학기술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2. 12월호

충남지역 상권과 대형소매점 영업활동 규제방향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중국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 계획과 충남도의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박경철

2013. 1월호

내포시대 충청남도 경제정책 운영방향

충청남도 남궁영

2012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3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김윤아

2013. 2월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변화와 전망

충남테크노파크 황정현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쟁점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산세의 「약속」

누구는 묻습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느냐가
무엇 그리 중요한가.

북카페 '산세'는 믿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잔의 커피가,
한 그릇의 음식이
우리 사는 세상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그래서
북카페 '산세'는
좋은 책과 착한 커피,
친환경 먹을거리를 추구합니다.

북카페 '산세'는 좋은 책과 공정무역커피, 친환경 먹을거리가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북카페 '산세'의 수익은
북클럽 지원, 다양한 독서강좌 개최 등 나눔과 공익활동에 사용됩니다.



우031-966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 1583, 041-571-3336
인터넷 집 북카페 '산세' <http://cafe.daum.net/bookbird>

북카페 '산세' 운영시간 :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1시, 매주 일요일은 휴식과 성찰을 위해 문을 닫습니다.

북카페 '산세'에는 모임과 만남을 위한 별도의 모임방이 1, 2층에 있습니다. 모임방 이용에 따른 별도의 이용료는 없습니다. 예약을 해 주시면 이용이 편리합니다.



· 나사렛대학교 앞에서 월봉정순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
철길 밑으로 나와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위 기업은 충청남도가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여 광고를 지원합니다.